東亞日報
夕刊
二十二日本紙八面
發行人 編輯人 印刷人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新聞價 廣告料

咸興水組請負 業者暴行

一

咸興水利組合의 方今工事中에 잇는 川原洞洪上里에서 지난十四日에 堤防破壞問題로洞民과 請負業者가相爭中 十六日夜半에는 請負業者가勞働者數十人을煽動引率하고 該洞里를 襲擊하야 村民數十人을毆打하고 區長을工事事務所로 拉去하야 爆藥 拳銃等으로威嚇毆打하야 重傷을當케한後堤防을 切斷하고 그날밤부터는 坑夫六名의日本人이 中國人勞働者十八人을거느리고 棍棒 拳銃을持하고 每夜三時가지나도록 洞里를徘徊威嚇하야 住民이戰戰兢兢中에잇다하며 그뿐아니라 이事件이鎭靜도되기前에 川西面高陽里에서는 지난十九日에 日本人工事監督이 洞民을拳銃으로射殺하고 毆傷을加하야四人의殺傷事件을 惹起하얏다한다

二

紛爭의原因이 어데에잇엇든지간에 人命이草芥가아니오 또한 法이保護하는以上, 所謂良民의生命을 私利에利用하야 村民의生活을威脅하는것은 容許할수업는暴虐임은勿論이려니와 이事件에對한 當局의態度와 그責任을뭇지안흘수업스니 이러한暴行이란 한事態에 一時的突發的으로된다면 그責任을 個人에게만 돌릴수잇겟지만 十六日에 發生한 事件이 있은뒤 十九日에 또다시 事件이 發生한것은 이러한 事件이 그때의 事情如何에 딸아 一時的 突發的으로 된것이 아니오 以前부터의 소위 警察의 取締가 不充分하엿다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닌가

三

이러한紛爭이 또다시이에서 안일어나리라고는 할수업다 朝鮮의産業狀態가 아즉도開拓收復을 만히 要求하는것만큼 水利開拓, 河川整理, 鑛山發掘, 林業等의 工事가 繼續될것이다 이러한때에 住民의生存問題와 事業의進行問題가 相衝할境遇가업스리라고 생각할수업다 이것은旣往에도 여러번 보아온 衝突이다 이에對하야 村民의生活과 村民의利益과 財産이 侵害되는 處地에서 企業家의集團的勢力을 背景으로 取締하게되는 當局의 態度는 어떠케할것인가 이런때에 住民의生命 財産은 누가 保護할것인가 警察이 公人으로서 私刑的으로 不法行爲를하는 責任者가아니냐 그런 법이 公正한가 法의公正한 取締가 아니면 村民의 生命 財産을 保護할 道理가 업다

四

또한 成興水組當局者에게 이번事件에 對하야 一言코자한다 殺傷에對한責任을어떠케할 것인가 今後의作民과의 問題이지만 이러한 利害衝突問題가 勿論不得已한境遇에 나온일이겟스나 圓滿進行을 合理的으로 法的으로 解決치

中央軍王善玉軍 十九日洛陽占領
西北軍潼關까지退却?

【北平二十一日發】鄭州來電에依하면第十軍王善玉氏는十九日드듸어洛陽을占領하고 即夜洛陽警備司令에任命되엇다 中央軍은西方을向하야追擊中이다 西北軍은潼關의第一方線으로退却中인데結局潼關까지退却하게될것이라고觀測되더라

【漢口二十一日發】二十日夜漢口總司令部後衛는中央軍이十九日洛陽을占領한旨를公表하얏더라

張發奎軍昭關占領 不遠廣東에入城
反蔣運動全國的으로勃發 各地의雜色軍策動

【北平二十二日發】河南湖北의戰況이政府側에不利하기째문에反蔣運動은全國的으로勃發하야大動亂의兆가漸次明瞭하게되어南京政府의運命은今後時間問題로된다고한다

一、廣東北部에는이미張發奎軍이侵入하야昭關을占領하고近近廣東에入城할豫定으로陳濟棠과의諒解가成立하얏다

一、河南中部에서는石友三軍四北軍에加盟한것은確實

一、湖南의何健은외로張發奎와連絡하얏다一般은湖北에入한西北軍과連絡할것이다

一、安徽中部에는旗方振武部下가不斷히策動하야漸次勢力을增大하얏다

時에反蔣態度를明示할것이다

粵軍, 省境撤退
陳濟棠氏謀叛?

一、廣西省에서呂煥炎은去十六日中央에對하야保境安民을宣言하고十七日梧州에戒嚴令을布한바不遠하야兩廣獨立政府의樹立을見할것이다

一、湖北西部施南에서胡宗鐸은四萬五千을率하고獨立을宣言하야行動을開始하엿다

一、山西의閻錫山과馮玉祥은合에努力할것이다

一、四川派의策動이猛烈하야許崇智도來하야西北派와의結合이되어廣東에서는此際에일어나고있다

【香港二十日發】廣東軍은强力한廣東軍은梧州도撤棄하고二十日反政府軍에게壓迫되어省境을目하야下로退却하야內線作戰에出하야다시都附近에서는陳濟棠의軍이內亂에參加하야廣東으로歸還하엿다한다

廣東軍梧州抛棄

【香港二十一日發】廣西省에서는

勞農中央執行委員開式

【莫斯科二十日發】勞農中央執行委員會開式은二十日夜크레물린宮殿內에서盛大히擧行되엇더라

治法撤廢를 單獨宣言?
面目問題와內政關係로 中國側外交通消息

【北平二十二日發】中國側外交消息에依하면國民政府는廢棄와王正廷氏의內外交渉하는一般의治外法權을年內에撤廢할것을一日以後宣言할것을우의期하는中國에있다

佛伊豫備交涉 專門家協議形式

【巴里二十日發】佛伊兩國은倫敦海軍會議의開會前豫備交涉을行하기로決定하엿는바그交涉地는巴里로서形式도專門家의會談의形式으로行하게되엇다

三氏親任式

【東京二十二日發】濱口首相은二十二日午前宮中에參內하야親任式을擧行하엿다

達來諸爾方面 中軍第十七旅全滅
黑河方面도危機切迫

【哈爾賓廿一日發】東支鐵道西部의交通電信電話는十七日以來全部가不通이며一方黑河方面도危機가迫來하야同地의日本人婦女子十一名은齊齊哈爾로避難하얏다

米國臨時議會休會

【華盛頓二十一日發】米國下院은上院의休會案을承認하고二十二日에閉會하기로決定하얏는데臨時議會는二十二日부터十二月二日의通常會期까지休會하기로되엇더라

彈藥이消盡된中國軍 滿洲里陣地도抛棄?
露軍捲土重來면全滅

【哈爾賓廿一日發】中國側消息에依하면滿洲里方面의中國軍은彈藥이盡하고또達來諾爾方面에對한露軍에게後路가遮斷되어同地는依然孤立狀態로서露軍이襲來하면全滅할外업슴으로滿洲里方面을迂回하야海拉爾로後退하기로決定하엿다

軍用車粉碎 死傷者多數
戰鬪는擴大形勢

【哈爾賓廿一日發】廿一日第一次戰鬪가繼續하야奇襲을試하고戰鬪는擴大의形勢에있으며中國軍은海拉爾方面의鐵道其他機關及住民의特別列車를運行시켯스며萬一에對하야特別軍事編成에着手한바이리하야多數의死傷者를出하얏다고達來諾爾의中國軍用列車는露軍飛行機의爆彈으로粉碎되어多數의死傷者를出하얏다하며露軍은六百名이生埋되엇다

行動嚴正을期하라
帝國辯護士會決議

【東京二十一日發】某事件이漸次現內閣에移한으로政府의各種醜聞이檢事局에加한다는所聞에對하야帝國辯護士會는二十一日午前十時臨時會를開하야左의決議를하고午後一時司法當局에提出하얏더라

決議

司法의威信은一一히그適正과公平에依하야此를維持한다今疑獄이續出하야其人은帝國司法官憲이公正으로써그職責을遂行하기를切望하며司法行政上司된者深甚하게反省하야行動을嚴正하야世人으로하야금疑惑의念을抱케함과如한事가업기를期함

青島紡績罷業 益益險惡化
徹底的彈壓도無効

【青島廿一日發】大日本紡績會社의罷業은今朝에至하야益益險惡化하야工人六百名이共產黨員과交하야同社의機門을破壞하고粉碎하야大混亂으로되엇다中國官憲은陸戰隊의上陸을請하야徹底的彈壓을期하나威令이조금도行치아니하야他의紡績會社도工人의迎擊을受하고잇다

宋子文向許昌 蔣氏面會코저

【漢口二十日發】飛行機로南京을出發한財政部長宋子文氏는十九日午後漢口에飛來하야直時特別列車로許昌에在한蔣介石氏許에갓다더라

某重大疑獄事件은 斷然徹底히檢擧
法相歸還後協議決定

【東京廿一日發】某重大疑獄事件에關하야東北方面의旅行을中止하고二十一日午後三時急遽歸還한渡邊法相은即時三時半부터川崎小原兩次官泉二刑事局長을大臣室에招하고諸般의報告를受한바渡邊法相도事態如何에不關하고徹底的으로檢擧를行케할것이라고各主腦者間에意見이一致하고法相은特히小原次官은自宅에서도首相에게報告하얏는데同次官은自宅에서官邸에서野檢事正을招하고司法當局의發動에對하야는斷乎하게進할것을指示하고今後再次大臣室에서渡邊法相에게報告하야對하야善後策을協議하야 二十分에散會하얏는데某疑獄事件은今後容恕업시司直의手로糾明하게됫더라

『大戰回想』을 執筆中卒倒
클레만소氏重態

【巴里廿一日發】過般一時重態를傳하든『클레만소』氏는奇蹟的으로良好하야主治醫의阻止도不聽하고『大戰의回想』을執筆하고잇든바二十一日朝猛烈한心臟發作에侵襲되어再次重態에陷하얏더라

上海法院問題
中國側讓步?

【南京十九日發】上海臨時法院問題의交涉은豫定의十九日外交部로各國代表一人도來京치아니하며南京政府는上海駐在各國總領事外交使節에서各一名을加하야는讓步를要求하야其人選에對하야日本에對하야도參加를要求하엿다하고方式으로參加認定이잇슴을通告하엿더라

이라크新閣
『스』氏가組閣

【바그닷트十九日發】『이라크』國首相『무신』氏自殺後內相『나지・쓰와이지』氏는十九日新內閣을組織하얏더라

善後策을協議
閣僚[illegible]招致

【東京二十二日發】某疑獄事件에對하야濱口首相은[illegible]

首相의心慮太甚

前某大官 又召喚
廿二日午前에

【東京二十二日發】某前大官은今廿二日午前十時다시東京地方裁判所에出頭하야取調를受하얏더라

政局急變도 未知의形勢
各方面緊張中間內閣說까지
◇利를본者는無產黨뿐

【東京廿二日發】諸種疑獄事件은이政友會를中心으로行하야政界의惡事는政友會만에集合된觀이잇더니最近某事件이發展하자民政黨方面에도綱紀紊亂行이摘發되어政界의腐敗는政民兩黨에及하야綱紀肅正을標榜하는民政黨에게도조치못한現象을呈하게되엇다하고此際事實을起하고政府側이不利하게되면가잇스면無產黨이進出하게되어何時政局上에急變을見할는지未知임으로政局各方面이모다緊張하얏다그러고政友會에서는此際倒壞되면政權은政友會에移할터이나民政黨內部에서도解散하고濱口首相이出馬하리라觀測되더라

政略中止
公正會決議

【東京二十二日發】某疑獄事件이대此際政友會도자미스럽지안은바

某全權渡歐 樞府方面에難色
野黨側도反對運動?

【東京二十二日發】某疑獄事件은樞府方面의深甚한注意를惹하야疑惑의渦中에잇는某全權을國家의代表로서國際的重要會議에派遣함은國家의體面上, 조치못하다하야倉富樞相은近近濱口首相을訪하고事件의眞相을質할모양이고野黨側은此機를乘하야某全權渡歐反對運動을起하려하는形勢에잇더라

家賃減下
輿論에鑑하야 東京市의英斷

【東京二十二日發】東京市는家賃低減의輿論에鑑하야二十一日低額을實行할터인바今明中家屋稅約一割五分의發表하야各方面에서時宜에適한處置라고賞讚하더라

人事往來

▲小河正儀氏(拓務省朝鮮部第一課長) 二十二日午前十時京城驛發赴任

▲金思演, 韓圭說, 李圭復, 吳從煥氏(新任京城府協議員) 二十一日本社來訪

▲李仁用氏 同上

▲曺秉相氏(新京城府協議員) 同上

▲洪必求氏 同上

▲三輪和三郎氏(京畿道警察部高等警察課機密係主任) 新任

▲吉野藤藏(總督府警察局高等保安課) 同上

▲森岡二朗氏(總督府警務局長) 二十日午後東京出發二十七日午後七時京城驛着任

▲사・치리氏(駐日英國大使) 令孃同伴二十日朝釜山에上陸同夜入京二十六日夜奉天에

橫說竪說

遠慮되는 疑獄에 民政黨의 關係도判明되어 現內閣巨頭等도召喚되리라한다

□

原體가 現代政黨이나政權은 金錢이라야維持할수잇고金錢을어드라면 利權팔어먹는것이捷逕

□

本質이그러한以上 何黨이든지이길을밟는것은 自然한理勢

□

또一黨이政權을 삼엇슬때他一黨의非行을 摘發彈壓함은 自勢擴張策으로 可謂常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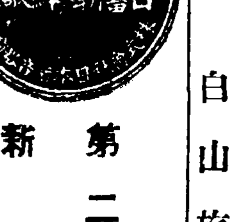
□

可笑로운것은 政友會가납작해지니까 조하하든民政黨이뒤人다리를붓잡혀허둥지둥하는꼴이어

□

이야말로 혹떼라다가 부치는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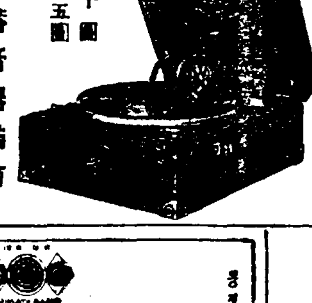
吹込 電氣 일츅조선소리판 一枚 壹圓



第二回 新譜

新流行歌 푸른하날(靑空) 作曲 K・K오ー 洪文姬
淚의 밤 (東京吹込) 기스무라
西道雜歌 孔明歌 李眞鳳 金山月
고당상 고당상 (悲憤軍士白嘆歌) 裵雪香
판소리 孔明祭風 (남병산에서 바람비는데) 李東伯
俗曲 軍奴使令 舍주정 (第一同) 林明玉 林明月
沈淸歌 (沈淸이가 나는사대목) 李花中仙
伽倻琴並唱 沈奉事는또는매령 吳太石
春香歌 리별가 金秋月
短歌 別調 遊覽歌 白點鳳
伽倻琴 合奏 진국거 양도리 朴鍾基 安基玉
西道雜歌 수심가 역금수심가 孫眞紅 金香蘭
小說朗讀 秋風感別曲 白牧丹
雜歌 장고타령 梅花타령 林明玉 林明月
童謠劇 숨바꼭질 兒童藝術研究會員
童謠 갈거가 엄마울는 새이방 李貞淑
◎購買는반듯이本社의各特約店을利用하야주십시요

이글 第七號 四十圓 第八號 四十五圓 携帶用 兩錢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메루치젓販賣 市內蓮洞二四五番地 白山旅館

藝題 前科 藝妓園의 前科, 洞鮮, 開良錢, 西洋舞踊, 獨唱, 雜歌, 京城雅, 合唱, 成道歌, 西道雜歌, 伽倻琴, 南道立唱, 林明心의 擦痕曲舞, 冒險獨唱 曲藝, 其他 後科 交替上演 可驚할 妙義의 十歲少女의 南道雜歌 歌 等의 觀覽은 神奇하고도 쌀쑥 합니다 속히 한번 구경하십시오 春香歌, 赤壁歌, 沈淸歌 觀覽料 上階 大人全錢 小人卅錢 下階 大人 小人卅錢 黃金町四丁目 朝鮮劇場 常設館 電話本局一八九二番

十一月廿三日부터 大公開 ◇朝鮮映畫社特作 青春萬歲 8 ◎朴珍編 라式運動映畵!! ◇朴晶影映畫製作 女軍島 全一卷 ◇伊太利크라운特作超特作 폼페이最後의日 14 ◇朴晶影映畫製作 아리랑고개 全一卷 ◇ 월스 一卷 폼페이에大火山이터저서大部會는경夢한자취이를어폼페이 市街는滅亡에구렁으로!! 仁寺洞 團成社 電話光一八二一番

털이나는 博士의藥 殺菌, 興奮, 榮養 三作用兼備 ●田中醫學博士의成功 ●후미나인의創見과 ●可驚할實際的發毛力 元來毛髮에는水分이나더러야 ... 發賣元 東京藥院 說明書進呈 東京市 大阪市 東京藥院

大阪着名問屋案內

防寒用 毛メリヤス 製造卸 商店에限하야型錄送呈 大阪市北區紅梅町二 合名會社 丸和商店

スポン

쇼ー루・首卷卸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 蝶票洋傘問屋 橫田商店 店頭申込型錄送呈

金物問屋 問屋選擇은成功의母 商店에限하야商報送呈 大阪市南區北久寶寺町 木手器具 日用金物 卸問屋 大野合名會社

向冬 メリヤス各種 運動服裝全般卸問屋 大阪市北區梅ケ枝町 吉川長商店

ClibPDF - www.fastio.com

卅餘戶數百同胞 三年을生地獄에呻吟
不法監禁코慘虐한暴行
◇지금도몸을벗어날길은아득하다◇
神人共怒할此事實

정든고국을 리별하고의지가지 업는 만주(滿洲)등에서 헤매이는 조선 동포들의 참상이야말로 이알고도 남는바어니와 재작년 봄에 행처살길이 업슬가하야 길림성목빈현작목때자(吉林省同賓縣作木粉子)에잇는 왕자안(王子安)이라는 중국인에게 속아서 그의 농장으로 갓든 조명환(趙明煥)이하 삼십여호 백여명의 가족들은 수년을두고 잔인무도한 전긔 왕자안의 불법감금(不法監禁)과 학대무쌍한 독아(毒牙)에걸리어 목하 생지옥에서 신음하는중이라는바 전긔 왕자안이가 전긔 조명환 외 삼십여호 수백명의 가족을 불러 개간할토지도 조코 가는려비와 농구를 준다는 조건이엇스나 속아서 가서 본즉 토지도 홍수가 창일하는 곳일뿐 이라더라 … 파수를세워 마치 죄수와 가티 취급하야 일체의 자유를 구속하는외에 나날이 심하야 가는 학대로 견댈수업다는것

數次의陳情도水泡 風前燭火가튼運命
◇오도가도못하고감금당해◇
吉林當局聽而不聞

그가티 인정풍속(人情風俗)이 다른 이역에서 월개월포한 중국인에게 속아서 마치 생지옥과가튼 각금생활을 재작년봄이래 삼년동안이나 계속하고잇는 삼십여호 수백명의 가족들은 이주하든 재작년봄에 전긔왕자안이가 대어준 이주비용에 못삿히어 가도오도못하고 청산(淸算)업는 농사를지엇스나 그해에는 수재로 먹을것도 건지지못하고 작년금년의 농사도 역시 홍수로 반감이 되어 먹을양식조차업게되어 부당한 횡수의 려비를 지불할여유가업서 전긔 왕자안의 학대는 더욱 가혹하야 그동안 심주한 파수방위를 둘러서 작년중에 합이반월 긔보와가티 본령사관에 진정을하얏스나 변신 … 길림(吉林)으로나와 길림성정부(吉林省政府)에 구출하아달라고 금번가 청하얏스나 역시 신통한 효과의회답을 듯지못하야 그들수백명 가족들의 생명은 그대로 구출할방도가 업시되엇다는데 이에대하야 조선내지동포들의 구원을 간절히바란다더라

新幹委員會 議案도決定
【廿三、廿四兩日繼續開會】
地方委員繼續上京

신간회본부(新幹會本部)에서는 긔보와가티 이십삼일 오전 십시부터 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게 되엇는데 각 지방위원이 속속 상경하는중인바 그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안(議案)은 다음과갓다하며 각 지방위원이 속속 상경하는중이라더라

◇第一日(二十三日)

一、開會
二、點名
三、開會辭
四、前會錄朗讀
五、各部經過事項報告
六、重要經過事項에關한承認의件
가、規約第七十四、五條解釋決議에關한承認
나、光州支會判決處分에關한承認
다、木浦、成川、求禮支會紀律違反事件에關한報告及處分
七、會報擴充方針에關한件
八、會館建築具體方針에關한件
九、中央常務執行委員及各部任員補選의件

◇第二日(二十四日)

一〇、沈滯한各支會復興에關한對策의件
一一、組織及連絡方針에關한件
가、道支會聯合會組織及集會禁止에關한對策
나、各支會定期大會에關한指示事項
다、勞働、農民運動連絡에關한方針
라、婦人、青年運動連絡에關한方針
마、衡平、及商工運動에關한方針
바、學生教養運動에關한方針
사、消費組合運動에關한方針
아、借家人運動에關한方針
一二、財政方針確立에關한件
一三、地方巡廻에關한件
一四、統制方針에關한件
一五、次回全體大會에關한件
一六、其他事項 以上

猝寒襲來
廿三日은小雪
◆今朝最低零下六度

밤이사샴이 소설(小雪)인데 금년들어 … 이십삼일 아침에는 최저(最低)영하(零下)육도오분을 가르치어 금년들어 처음 당하는 추위에 「에-이 추워! 어추워!」하며 방한(防寒)차림을 차리기에 … 이날추위는 북부만주(滿洲)로부터 고긔압(高氣壓)이 … 로 돌기아서 … 추위는 계속되리라는데 금이십

이날 아츰의 최저온도는 【○】六九로 이를 전년동일에 비하면 … 가 저하(低下)하얏더라 【사진은 서치에 잇더는 가네】

朴濟煥判決
二年執行猶豫

경도(京都)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경제과(經濟科)재학중이든 박제환(朴濟煥)(二五)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 사건판결언도는 긔보한바와 가티 이십이일 경성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동법원 말광(末廣)재판장으로부터 징역일년에 이년간 집행유예의 언도가 잇섯다는데 그리유는 작년동원에 학중에 경도피고의 하숙에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青年會)의 회원 도재긔(都在琪)의 권유로 동회는 일본제국의 ○○으로부터 리탈하고 또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인 정을 알고도 이에 입회하야 여러가지로 활동하얏다는것이다

집어너다가 알어냇다가 獬豸生涯도辛酸
총독부청사압으로나와
監禁生活五個星霜

광화문(光化門) 압헤 업드려 경복궁(景福宮)을 직히든 해태한쌍은 총독부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사하든당시 그압길을 넘리든 해에 집어치워 근정문(勤政門) 한편구석진곳에서 거적을쓰고 오년동안이나 구박을밧든 해태가 이번에 총독부에서는 신청사의 위관을 도두기위하야 다시 … 어내다가 세우기로되어 방금 총독부청사 정문압 좌우에 … 하는중이데 금년내로 건립하려 한다더라 넷날광화문압해 해태는 … 관악산(冠岳山)에 화산이 되위 서울에 불이나 … 해태를 세워 관악산의 화긔를 막기위하야 세웟다는 … 【사진은 해태】

朝鮮語綴字法問題는
畢竟엔折衷案을採用
―관념음과 표음을석거쓰기로―
싸종성은불편한것만제외해
明春發行教科書도改訂編纂中

… 몃해를두고 회의를 거듭하며도 … 총독부의 조선어 연구중에 잇든 조선어철자법(綴字法)개정문제는 이미 발표하기까지에는 이르지못하얏스나 래년봄에 개정되기로 되엇다는데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조선어교과서 편찬에는 철자법에 의하야 … 사용하얏습으로 위간에 … 세상에 공포하려라고하는바 … 의미에서 「라」「人」「ᄍ」등을 표음적 표긔법으로 쓰기로 되엇스나 … 「녀자」「녀자」(女子)는 그대로 「녀자」(이전대로) 「회령」(會寧)은 「회령」으로 …

▲利益은리익 ▲議論은의론 ▲十里는십리 ▲十月은시월로 ▲鮮魚를생어로 ▲趣味를취미로 ▲德川을덕천으로 ▲良心은량심 ▲羅南은라남

… 대표음표긔법과 병서며 복용종성사용을주지로하되 … 이어그때문에 불편을감하는것만은 래대로두게되는것이다

廿三面議員選擧도
日本人이優勢占領
◇작년보담도조선인은줄어
朝鮮人은四割强에不過

이십삼지정면협의원선거의 상황은 … 작지에 보도하얏거니와 그 결과 당선된 원수는 백이십이명이 당선되어 일본인보다 여덟명이 만하야 오할남짓 … 조선인은 전부이백륙십사명 중 … 사할삼분강으로 … 긔번보다 감퇴되어 … 그룹는 사활 것을엇는바 …

◇廿三 定面協議員當選率

	定員	(朝)	(日)	率
水原	[illegible]	七	三	[illegible]
開城	[illegible]	一〇	四	[illegible]
永登浦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清州	[illegible]	五	三	[illegible]
公州	[illegible]	四	三	[illegible]
大田	[illegible]	一	三	[illegible]
烏致院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江景	[illegible]	四	四	[illegible]
裡里	[illegible]	五	三	[illegible]
光州	[illegible]	六	四	[illegible]
金泉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浦項	[illegible]	五	三	[illegible]
晉州	[illegible]	六	六	[illegible]
鎭海	[illegible]	四	八	[illegible]
統營	[illegible]	五	七	[illegible]
海州	[illegible]	五	七	[illegible]
春川	[illegible]	四	八	[illegible]
咸興	[illegible]	[illegible]	八	[illegible]
羅南	[illegible]	五	九	[illegible]
城津	[illegible]	六	六	[illegible]
會寧	[illegible]	一	一	[illegible]
雄基	[illegible]	七	五	[illegible]
光州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知事級爲始로 千餘名淘汰
관리에휘부는실직선풍
◇第二次官吏移動

근근 총독부에서는 이차이동이 발표되리라 하는바 … 그것은 이십오일경 발표될것으로 보아 …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 경북, 함남, 강원도와 … 지사(知事)급의 이동이잇스리라고한다 … 도의 도태가 이 … 이상에 달하리라 하며 … 재정긴축으로 말미암은 … 행정정리로 … 관리 약천여명이 … 예정이라더라

中央高普生 十餘名을檢擧
종로서에서돌연활동개시
二年生一部가動搖

이십이일 새벽 종로경찰서에서는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이학년생 일백육십여명 중 이십여명이 동맹휴학을 하려다가 … 그들은 학교당국에 동창회(同窓會)의 자치, 조선어작문(朝鮮語作文)을 가르처달라 또는 모모선생을 … 다섯가지 조건을 … 요구하엿스나 학교에서는 그 요구조건을 거절하엿다는데 … 이십여명을 검거하야 취조중 …

新幹京西支會 大講演會開催

【경서】 신간회 경서지회(新幹京西支會)에서는 이십삼일 오후 …시부터 마포 청년회관(麻浦青年會館)에서 … 연제로 강연회를 열리라는바 만히 참석하기를 바란다더라

◇휴지통

▲거적을쓰고 … 해태가 다시 총독부 압으로 나서서 백일을 보게되엇다 ▲해태는 선악과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복즘생이라 녯날부터 … 오늘에 또 무슨 생각으로 내다모시노 ▲피고 … 요새 관리들의 가문란하야 … 해태도 … 하는말이 잇다 …

火藥秘藏한 怪青年檢擧
광산용화약을품고잇서
東門署가極力取調

금이십이일 오전아홉시경에 동대문경찰서원이 숭인동 부근에서 … 청년한명을 검거하야 … 광산(鑛山)에서 쓰는 화약을 가지고 잇는것을 … 동서로 데려다가 취조하는중이라더라

直訴犯逮捕
【동경전보】 천황폐하께서 수호시(水戶市)에 행행(行幸)하셧다가 이십일일 오후세시이십칠분에 상야역(上野驛)에 어착하야 궁성으로 환행(還幸)하시든 도중 상야공원압해서 군중가운데 돌연히 청년한명이 나타나 직소(直訴)를 하려는것을 마침 그곳을 경위하고잇든 경관과 헌병이 제지하야 체포하고 취조한결과 … 황목일(荒木一)으로 판명되엇다더라

前夫는死別、後夫엔見棄
苦海荒波에愛女投殺
法廷에나타난悲慘한事實
―첫번남편은죽고두번새남편에게버림바다가 필경에병신자식된어린딸을죽여―

… 여자는 … 한살된딸을 더리고 … 고생을하다가 … 리성국(李成國)에게 개가(改嫁)하얏스나 … 버림을 당하야 … 자식을 데리고 … 결국 … 물에 던저 죽이엇다는 것이다

二百名檢擧 五十名起訴
전부소요죄로수감되엇다
高知漁民暴動續報

【고지】 고지현(高知縣)에서 발생한 어민(漁民)의 … 소요사건의 검거자는 이백여명에 달하엿는데 그중 … 오십일명이 소요죄(騷擾罪)로 수감되엇다더라

當選謝禮

淸州面協議員

李東洙
金晚基
金尙鉉
李錫永

當選謝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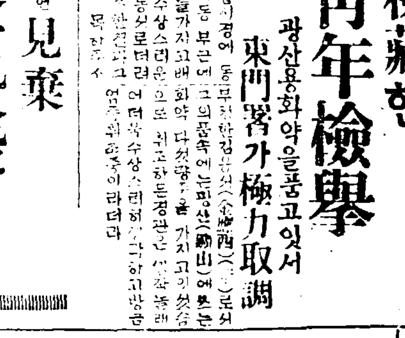
今般鎭南浦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와府內有志各位의熱烈하신聲援으로當選의光榮을得하얏사오니不勝感謝하와玆에紙上으로써謝禮의意를謹表하나이다

(無順)
青木健三郎
鈴川種一郎
立添種六郎
川枝二郎
重村太助
河川國索
古田順吉
野良二
牧野昇

當選謝禮

今般鎭南浦府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愛護와府內有志各位의熱烈하신聲援으로當選의光榮을得하얏사오니不勝感謝하와玆에紙上으로써謝禮의意를謹表하나이다

(無順)
尹基元
趙定鎬
李榮常
楊致中
吳中洛
金頎
全洛鴻



京城本町一丁目
鎭鑫大澤商會京城支店
振替京城二三一一番

現金問屋
冬物메리야쓰各種
(諸雜貨在庫豐富)
買入하실諸位는
京城南大門通一丁目
瀨戶勝本店으로
電話光五九五番

旱害尤甚한金海서 小作料五分을引上

지주도일인, 중간작인도일인

六十作人은同盟抗爭

【김해】 경남김해군상동면대감리(慶南金海郡上東面大甘里)에서 농장(農場)면적이 약사십정보되는데 대하야 종래로는 소작료오할(小作料五割)을 납입하든 것을 금년에와서 돌연히 오할오보(五割五步)로 인상하며 종조(從租)에 대하야 금춘이후로 소위 색거리라는 년오할리자를 씨어달라하며 또 고초(藁草)를 매백단에 얼단씩을 납입하라고 소작인에게 요구하얏슴으로 소작인들은 금년가튼재년(災年)에 김해주가 는새로히 돌이어 혹독히 요구한다는것은 도저히 응할수 업다하고 약육십명의 소작인이 일제 불납동맹(不納同盟)을 하고잇는데 이제 자세한 말을 들은즉 금년에 전지주는 부산부서정(釜山府西町)에 잇는 일본인 오도성조(五島誠助)란 사람에게로 지주가 맛기는 바람에 그지주는 김해군장유면(金海郡長有面)에 잇는 일본인 재등, 적천(齋藤, 赤川)이란 두사람에게 소작료를 일정한액수로 징하야 중간소작을 식혓든바 이중간작인(中間作人) 두사람은 자기의 수입이 적음으로 이를 소작인에게 착취(搾取)하랴다가 그때케 소동이 난것인데 이문제는 그면내에서는 처음보는 쟁의(爭議)임으로 다른지주들도 이문제의 해결여하를 주목하는바 전지주 오도(五島)씨는 전년에도 김해군주촌면(金海郡酒村面)에 잇는 토지에 대하야 무슨 부정한 문제가 잇섯는데 이번에 또 이런일이 생겨 한동안 세상의 주목이 만흔데이 아모말도 업시그 부근원압리(元岩里)면으로 감부봉의실 제현동(德洞)이가 자긔형의 신변이 긔험하다는 말을 듯고 또 차가서 리더라

寺田氏談 나는 지주에게 적당하게 소작료를 오백이십석에 새어맛고 그런고로 착착 인에게 소작료를 올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당처 할수가 업습니다 아니합니다 앗가말습 하얏지만 되는고로 안심해주시오 할수밧게 업습니다 아모리 소작인측의 말하는 소작료 통 문제 가튼 것은 감하야주면 나는 작인에게 무리한요구를 하지 아니하겟슴니다

小作人側談 그것이 무슨 말슴입니까 중간에 가만히 안자 가지고 자긔리익을 탐하야 남을 죽이랴 하야서야 됩니까 우리는오날까지 중간작인에게 소작권을 어더가지고 아모리 말을하야보아도 도모지아니 듯어주니까 우리는부득이 우리대표를 씨아부산지주에게 보내어 보겟슴니다 그러나 지주가 잘해결 지워주지 아니하면 버름해에서 빗혀는 한이잇서도 그무리한데는 못응하겟슴니다

日本人側의 繁榮會도奮起

넘우고집말고결의대로하자고 上京한會頭에電報

【평양】 지난이십일오후두시반 내관(內關)내무부장 (藤原內務部長) 지난십칠일오일에 성결정한것을 차로동원내무부장 (藤原內務部長) 과 소송정하두 (松井會頭) 상 (城東局外省) 를 조직하얏다는바 무부회두 (長谷川會頭) 가 상경하야 한후원미신라와 (迷信打破) 외 양다하얏든 거보하얏거니와 지난생사상보급 (衛生思想普及) 회보 이십일 조천인 일본인 평의원들 발행 (會報發行)(三個月一回發行)을 목적하고 매월 십오일에 의결의로 첫재는 정수제한철폐 (定數制限撤廢) 를 등록하랴는 것 등인데 톨금번산거휴 못실현되도록 노력한다고 토론하히 을면다더라 조선인이 십삼일본이 션회로 하기 로하여 달라는 전의 의 불송 송정 회두 (繁榮會) 에게 전보를 발하 얏다 더라 이십이 일 상정 한 송정 회두 에게 금번의 안 은 비레 번은 부단 금 과 회원의 (按分比例) 에 의하야 (국 십 삼 대) 신칠) 하 되 금번 긔 씰지 나 서 는 곡 정 수 철폐 하자 는 긔 려 (激勵) 의 전 보 를 발 하 얏 다 하 며 경 성 에 서 되 는 경 과 를 주 목 하 며 잇 는 중 이 라 더 라

高敞高普役員會

會長에는 宋中湖 會長 金載俊

【고창】 재단법인고창고등보통학교 (財團法人高敞高等普通學校) 에서는 지난십칠일오후 삼시 경에 동교회의실에서 동교평의원총회를 열고 전임리사 김성호 (金相鎬) 씨 사회로 동교 정비보결 (評議補缺) 에 대한 여 책 강구 에 장 시 간 토 의 한 결 과 최 금 성 부 인 현 재 미 씨 기 부 금 (寄附金) 을 시 급 완 결 케 할 것 과 기 본 재 산 보 충 방 법 은 본 군 인 사 에 게 지 가 (地價) 표 준 으 로 재 차 긔 부 금 을 모 을 것 을 가 결 하 고 폐 회 하 얏 다 더 라

城東青年創立

【홍천】 홍천군영동면성동리 (洪川郡瑞東面城東洞) 에서는 당지유지 한 정수 (鄭壽) 백 자 한 (白子漢) 허 ...

出張檢視中의 專賣局員行勃

동리사람에몰려서달아나 良民毆打코亡身

【통인】 지난십구일오후세시경 에통인군남사면천궁리 (通仁郡南四面泉宮里) 에서는 동민백여 역과전매국원(專賣局員) 동파사 이에 충돌이생기어 부상자까지 내엇다는데이제 그내용을조사하 바에의하면그날경성전매지국근 무하는 김모(金某)(三)가 롱이 을장소에 근무하는 정석구(鄭錫九)와 그외인부두사람을다리 고당지에 출장하야 김부봉 (金武 연 (三))이란사람이 자긔집사람 에서 가마니 (叺) 치고잇는것을보 고 달려들며 당신이 지금피우는 담배는 무슨담배냐고 오며 담배 밀의규정으로써 정벌부터 추위 가갈때까지에 송옷한벌 그로 부터 넘어가 아조머뭇하며까지 에 경옷한벌을입고 다시가을의 시에 경옷한벌 추울때로부터 ...

【61】

그럼으로 남편이 사람 은 정월 부터 는 의복 제도 를 크게 고쳐서 그것 을 줄이 고 빗갈 을 검정 것 으로 박구지 아니 하면 아니 되 다 그리 고 이러 케 만 되면 옷 을 자 조 갈 우 입을 필요 도 또 한 업게 될 지니 류별 한 개 인 의 사 정 을 제 한 밧게 는 될 수 잇 는 대 로 일 년 동 안 한 사 람 이 폐 솜 옷 두 벌 경 옷 두 벌 의 규 정 으 로 써 정 벌 부 터 추 위 가 갈 때 까 지 에 솜 옷 한 벌 그 로 부 터 넘 어 가 아 조 먹 ...

歸農運動 農村改造篇 (二四)

換歲簡略을提議

피땀을올리어가며지은농사를 설한번지내고는헐벗고굶술여

鄕里에돌아와서…… 蒙古生

섯달그믐께지에 솜옷한벌을입 도록하자는것이다 이러하면다 만옷감을절약하고 사람의원긔 를도다보이게만할뿐아니라 한 편으로는 다시바늘과실보人속 에파무처잇는 안악네의집을헐 신털어주어서 그들로도하야금 또한다른더조흔일을하기에 시 간을갓게할수가 잇는것이엇다 그러고 녀름옷에는 검정빗이 넘우검흐니까 회색이나 또는그 와비슷한빗으로하는것이 조타 하얏다

이외안에는누구보다도첫재는 은이돌로부터 다소의이론이엄

지아니하얏다 첫십육은이들이 남부스러운게 이씨검정지고리 를입고 나설수가잇느냐는것이 다 부스럽게생각되는것은마음 을 그러케먹기때문이니까 그 그의반박적의 대답이엇는뒤에 그표본으로 신류명의 검정옷입 은청년군을 회장의정면에 죽 늘어서게하아 그씩씩하고도보 이는몸이 그런보다 어떠케훌 룡한가를 다시금생각해보게하 엿다 그러고 다시늙은위원장이 나서서

이마음에서가장원엇다는 나

도이번설부터는 그대로입고나 설테니여러분도나만말하합소 하는말이잇서서 모든늙은이들 도할수업시 그뒤로쏫기로되엇 다 안악네의의복에대하야서서 지는 아즉이것을결정할수업스 나될수잇는대로 또한검정빗을 장려하기로 결정하얏다

一、설을지내는습관개정에 관 한것

그단음에는다시이번설을지내 는데대하야 한의안이제출되엇 다 한해동안피땀을흘려는농민 들로서 형편이어지간만하면이 러한큰명절을 한번흥청하잘지 내는것도또한조흔일이엇다 그 잇는오늘의 조선농민으로서는 이에서도 또한남다른무슨면도 리를챙기지아니하면 아니된다 썬도리란 어떠한것인가

첫재로는설을지내기위하야일 대로빗을 어더쓰는아니된다 는것이다 대개우리농민들의 만다치면 굶고헐벗는사람들이 지라도 저어도사오원에갓가운 빗을어더케든지 어더내어서할 수업스면 미리풍작이라도어더

내어서 유삭거리로사들이고옷 감도떠틀이고 또는인조견 (人 造絹) 의 조써위도 사입고하 야될수잇는대로 이떠한번을풍 성하게지내랴는 버릇을가지고 잇나니이것은 대개빗도부터되 습관이 아니되는 처면에쓸려서 나하면아니되는것이다 그러나강 그러하게되는것이다 그러나강 력직생활추의로써보면 이보다 도더헛된일은업다 이떠한번을 잘지내기위하야 나중에 못달 이나 또는잘못하면 몃해를살 고나가면서까지 남의종노릇을 하는빗을내어쓰는것은 어리석 가작이업는일이나 돈잇는사람 들은 대개이들이 이러케가장 애다는때를타서 무리한조건을 다한빗놀이를 하기로일삼는 이다 그럼으로 이번에는이러 케리하의결의로써가라도 이 것을 극력방지하라는것이니빗 은쉽대로 쓰지아니함과동시에 장보기를하는비용은 그사람의 집안형편을쌀하서하되 대개일 원안팟그로써하고 만하야도일 원오십전을 넘어서는아니된다 는것이다

二錢畜積하야 廿萬圓會社까지

당초에는농업연구회조직 波瀾만흔그經過

【룡인】 지난십일월십륙일에경 긔도룡인군 고홍면서천리룡수 홍동주식회사 (京畿道龍仁郡 高興面西川里龍水興農株式會 社) 와또는당회사와자매의 관 계간에잇는 룡수농계 (龍水農 契) 의창립이십주년긔념식 (紀 念式) 을거행한긔회에 경로와 자래에 대하야 략긔하고자한 다 현하아사회제도하에서우 리 백의동포들의 생활상태와 문화진전을 수작하야 당회사 가 엇마만한 애쓸일는지만반 의긔란을교취하야가며 유주히 이만하사업에 두립적래도롭가

지고 한긔초에이르기까지의헌 상그대로만을 만천하에 한번소 개하야 자랑코자하는바이다

그러면 당회사와농계의당초창 설동긔는어써되엇든가 우선주 인공오성선(吳性善)씨의 노력 과히의결정이라하려니와 오씨 는 당초신긔씨천리라는불과몃 호의 산간벽곡의적은촌락의출 생으로 사환 (仕宦) 에잇다가명 치사십일년봄에 우선일본 (日 本) 등지의모범농촌을시찰한일이 잇섯가지고 농업국이라는조선 의현상과비교하야 정도우렬에

놋긴바이무쌍하 야농촌의진 흥이라는목적을가 그해칠 월부터 즉시동지자 (同志者) 몃 사람과소을마조뭇잡고 농업연 구소 (農業研究所) 라는회를 조 직하야가지고 사업에착수한것 이 첫거름이라한다 그러다가 그익년이월에는 그부근의소촌 락몃십호를합하야 범위를조금 확장하야가지고 주야로순회하

며 강연도하고또는부업에실지 착수케권장을하는동시에 천후 규측을변경하야가며 명창흥롱 수농계라변경하고 그옷음을벗어 가면서도 계원에게일천이전이 라는 그손에못고로무돈까지 모아다 저축하기에힘을썻다한 다 그러하다가는그저축하얏든 돈은그이듬해 춘궁에 세농궁농 (細農窮農) 가에 년임발오분내

지 이할이라는저리로 평균적 분배하야 주엇든바 이것이 원성 (怨聲) 만흔 각 계원들의 첫번 취미를사며 흥감을주엇든 것이라한다

그런데 불과긔년에 일한합병 (日韓合併) 과일로전역 (日露戰 役) 그를낭하야 농가의공포심 은날로 물을풀함에쌀하수난긔 를당하얏스나 정신과인내를가 지고꾸준히지지하야가다가 대 정원년에는범위를일면적 (一面 的) 으로넓히어가지고 저축부 (貯蓄部) 를두고 습관에지켜놓 고먹는부녀자 (婦女子) 를 조합 원에편입케하고놀고 먹고놀고 입는것을 통폐하는순회강화를 하며 로동의정신을 고취하며 쌀로한되 쪽은 두되씩을치지 대로 저축케하야남녀간에공존 공영의정신만을 한양케하는동 시에 일로부터는더한층힘커한 책임을지고 접무 (執務) 에열중

하얏다한다 그러는일방재큐리 생 (在留生) 들의친목을 에싸 고장후학계 (獎學契) 라는 계 를조직하고 각기자녀들의교양 에치중케하야마치의무교육 (義 務敎育) 과 가티교육에전장 하 야왓스며 이로부터는계원들의 다각기 권책임을오씨에게맛기 게되엇스나 오씨는그제부터는 태산가튼 책임을지고사입에분 망케되엇다한다 그이듬해되는 대정이년부터는 구우계 (救牛 契) 를조직하고 또다시계원들에 게공조심 (共助心) 을가지고 구 우에분망흔바 농촌의피폐가날 로우심하야짐은 조선에서습과 에잇는 고리대금 (高利貸金) 의 차용에잇다하야 짜로 금융부 (金融部) 를조직하 고저리로궁 농과 세농에게농자 (農資) 를대 부하얏슴으로 그부근에는고리 대금은전부소탕시키엇다한다

(寫眞은吳性善氏)

釜山權友臨總

【부산】 금월이십일오전열시에 부산청년동 맹회관에서 림시총회를열고오 후에 사무부진의책임을잇고오 래人동안사무부진의책임을 개선을하려라고 회원은 몰론이 어니와 일반사회의 만흔성원이 잇기를바란다더라

四名溺死屍는 蛤船顚覆으로判明

조개를팔고도라오는길에 龍岡安澗里사람들

【평양】 지난팔일오전여홈시경 에강서군신정면연하리 (江西郡 新井面蓮霞里) 해안 부근에서처 넷이써잇는것을 발견로각처로 수배하야 어때처인것을 조사 대 하동군칭암 (青岩) 주민과산 한다하은 귀불하야거니와지난 십구일 시체는판명되엇는데 령 원군 룡연안면리 (平原郡龍岡 面安澗里) 김성찬 (金心煥) (三) 리대 준 (林大俊) (三) 안성민 (安 成民) (二) 리레보 (李쫓福) (二) 로 수입 전 네사람은 동무 김수복 (金壽福) (三) 과바리관 (朴呂官) (三) 여섯명은 조선식범선 (帆 船) 에 대합 (蛤) 을실고 황해도봉 산군신양포 (黃海道鳳山郡新陽 浦) 에가서 전부팔고 쌀스를 두섬 소금 미명국사실고 진남포 (鎭 南浦) 에머므러 김수복 바려관 을은 나려고다시 지난칠일에 배 를 신고 나가 강서로 향하든 도중에 마 석이 되어 그가 려된 것으로 판명 이 되 엇 다 더 라

三人의牛賊團

【신천】 본적을 해주군월록면수현리 (海 州郡月祿面水峴里) 에 둔 박병철 (朴秉哲) (三) 강도전과이범 (强盜前科二犯) 동 군 데 차 면 도 평 리 (代車面桃坪里) 에 본 적 을 둔 오 병 순 (吳炳舜) (三) 리 (姓谷面大成里) 구 영 선 (具 前科犯) 동 상 면 의 절 도 단 을 조 직 하 고 황해도일대를 횡행하며 소도 적질을 전문으로 하다가 구명선 (具明善) 은 해주 경찰서에체포되 고 박병철, 오병순은 지난십일에 신천군초리면 달천시장 (信川郡 草里面達泉市場) 에서 신천경찰서 에게 동, 원종, 원홍 (崔元洪) 두형사에게 체 포되어방금신천경찰서에서 취조 중인데해주군장곡면광암리 (海

小年同盟會 面會

【공주】 공 주 소 년 동 맹 (公州少年同盟) 의 집회금 지를 당하고 잇다가 근일년동안 에서는 이래경찰당국의 집회금 지를 당하고 잇다가 근일년동안 해 금 되 어 오 는 중 (?) 회무가 침체하얏 스나 동안모되어방금신천경찰서 ...

以下同執行委員宋青濂李永九 外九名

◆委員長執行委員長安東斗 ...

行人을逆襲하고 金品強奪逃走

부천군소래면에생긴일

【인천】 지난십팔일에부천군소 래면방산리 (富川郡蘇萊面芳山 里) 이백구십번지최병오 (崔炳 五) 황군성 (黃君燮) 두사람이추 수곡을팔아가지고그날오후에부 천군남동면만수리 (富川郡南洞 面萬壽里) 음식점에서술을마시 고한동리김금석 (金今石) 을맛나 어가지고 종취을 감추어버렷다 더라

서 세사람이집으로 도라가는도 중에그방산리부근로변에서돌연 히강도가출현하야그세사람의신 처를수색하야최병오가가지고잇 는돈 사십칠원팔십이전을쌔앗

山清河東間 改修路踏査

【단성】 경남산청 (山淸) 과하동 (河東) 간의왕래도로로인하야산 청군단성면창촌 (山淸郡丹城面 倉村) 으로부터 하동군옥종면월 횡 (河東郡玉宗面月橫) 까지약이 리가되도록신설하는도로 긔지를측량 ...

車天子차저갓든七家族 家產만蕩盡코落膽歸鄉

강계회천사람으로서정리를머다안코 차천자를차저갓다가재산만업새버려

◇鄭鑑錄못밋겟다고長歎後悔

【개천】 지난이십일아츰에평남 개천역 (平南价川驛) 에근삼십명 에달하는백의동포를상한사람하 단체가하차하야 팔십로인과어 린남녀들이 각각보퉁이를어고 도로에서방황한사실이잇섯다는 데이사람들은 본적을평북희천 강계지방 (平北熙川江界地方) 사 람들로서 작년도에 소위보천교 주차천자 (普天敎主車天子) 를차 자멀리정읍 (井邑) 에이사하얏든 바 집가족이 재산을탕진하야가 지고갓다가 지금거지가 되어향 수업시고향에회천 강계등 지방 을차자환고향하는터이라는데일 행가운데 팔십로인한사람의말 을듯건대 우리산골사람들은 지 금판력가난다는동 또는남조선방

면에 이사를하야 산다는소위정 감록의비결을생각하다가 마츰 내정읍에잇는차천자 한테가면먹 고잘산다고함으로 더퍼노코이 천여리나되는데를 갓더니생각 하든바와는판이하야 우리가든 산골사람들이 그곳서무엇으로 생활하기가 곤난하야 생각다못 하야가지고잇든돈을차천자에게 바치고 남어잇는돈으로 살다가 할수업시 가장집물을 팔아가지 고이모양으로도로 오는길이라 고하며 더욱히 차천자측보천교 의마술에걸려서 엇든것을후회하 는데 오후세시부터 비가오기시 작하더라

더니 오후세시부터 비가오기시 작하야 그어른남녀들의 추수에 비로는 상당히퍼부어서 여간고롱이아 닌모양인데 산우에는백설이갓 독하얏더라

城東夜學盛況

【운향시】 홍천군용봉면성동동 (洪川郡龍峰面城東洞) 에서는오 년전에 당지유지구문환 (具 文煥) 백자현 (白子賢) 한경욱 (韓 景王) 등제씨의 발긔로 성동야 ...

학회 (城東夜學會) 를조직하고소 우 (小牛) 일두, 동군서화면엄리 (瑞 和面屋里) 에서마우 (大牛) 일두, 송화 군장양면학령리 (松禾郡長陽面 鶴嶺里) 에서 마우일두를도적하 야판것을자백하엿다더라

本報讀者優待

【례천】 경북례천 (慶北醴泉) 읍내에잇는 이원사진관 (二元寫眞館) 에서는 개업함에쌀하서 본보독자를 우 대하기위하야 특히청가에서 삭 감하야 제공한다는데 일반독 자는 만히리용하기를 바란다하 며 긔한은십일월이십일부터십이 월말일까지라더라

郵城에初雪

【강계】 지난열입햇 날오전중에 변안간하늘이흐리 더니 ...

孫婦求하려다 돈만뺏긴老人

【평양】 평북희천군서면상서동 (平北熙川郡西面上西洞) 한승유 (韓承兪) (七十) 는지난십구일오후 다섯시차로손자건원 (韓健源) (三) 이의혼처를구할려고평양에와서 무벽약송정 (若松町) 에류하면서 지난이십일오후세시경 대동교 부근에나갓다가 어떤칭년을맛 나자긔집은 식가도자 고하니 가 잇자고하면서또한조혼혼사처도 구하야주겟다고하며 우선돈부 터맛기라하야 백이십원을 쥐고 는몸지를쌔엿다는데혼처구하러 왓다가돈만쌔앗기엿더라

窃取한돈을詐取

기는놈우에나는놈!

돈구백원절취한긔미를알고나서 이것을가쏙가티쌔서먹자는계획

白川署에一網打盡

【신천】 배천군적봉면이덕동 (白川郡 ...) 백찬일 (白贊日) (一八) 과김창오 (金昌五) (三) 허귀련 (許龜連) (二) 윤석 룡 (尹錫龍) (三) 등은지난달이십 일 귀정군관서면조아동 (…) 리의화 (李義 和) (三) 가 동리 리형우 (李亨 雨) (二) 의 돈구백오십원을쌔어 쓴 한사실을탐지하고 그것을쌔아 서먹을 목적으로공모한후 김창 오를대두상 (大頭商) 이라칭하고 외이리익화에게우리가지금려찬백 (洪佰) 으로거짓한후 허귀련은 리의화에게우리가지금려 려물쫓는다고... 이업서뜻을일우지못하니 마츰가진돈 을쌔머니를작정이나 그대 이업서뜻을일우지못하니 마춤가진돈 의현금을잠간빌리면 후히갑겟 다고유인하야 잘취한 구백오십 원을바다가지고도주하야 맛 처리 논하먹은사실이 최근에탄 로되어방금배천경찰서에서 취 조중이라더라

蔚山青年事件 兩氏遂出獄

울산청년동맹사건으로 작년팔 월에수감되어대구복심법원 에서 부산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 으로부터 한고생하든 조형진 (趙亨 珍) 강철 (姜哲) 량군은본월 십팔일복심법원에서 무죄의판 결을바더 당일출옥하야귀향 하얏다는데당지에서는 그두청년 에게 열렬한환영을 하엿다더라

京義線列車에서 殺人犯脫走

김천하포를지날때생긴일

犯人은尚今未逮捕

【평양】 지난이십일오전두시경 경의선 (京義線) 렬차가 김천 (金川) 한포 (汗浦) 사이를지날때 두명순사에게 호송되어 오든죄 수한명이 렬차로부터 뛰여나리 어대로인지 도망하얏는데 순사들도 혼겁하야 수경을하 나아직범인을 잡지못하얏는데 이최수는 순천군밀전면 영미리 (順川郡密田面靈美里) 리영환

會合

◎高原河上里明信夜學會 去十五日에代表林基俊氏家에開催

◎北青新浦支會委員會 去十七日金士雲氏家에서開催、大會召集委員과會館建築委員을選定

◎青盟北青支部委員會去十九日同會館에서開催

◎北青勞組青年部設置 部長朴正洙

◎多山少年同盟委員會 去十九日青盟會館에서開催

◎星州少年同盟委員會 去十九日本報星州支局內에서開催

◎細島夜學開講式 去十六日同學院에서開催

◎康冕洙氏(論山郵便所長)送別宴 去十六日東洋館에서開催

◎楚山公普校後援會 去十五日同校講堂에서開催

新釋水滸傳 (549)

尹白南 譯 / 李靑田 畵

第六十四回 雪天擒索超 (七)

옹에는 나를신전에다 사게해 주시오」

하얏습니다 송강은 매우깃버하야 이날 호연작은 관승에게청을하며 「소장은 압서장군의명령을밧잡지 고돌이어 장군을속인죄를용서하 서하야주십시오」 자에 더리고온군사를그대로거 느리고 지원을세워 도흥을 하니 관승은 산진두령들의공 순한태도가 미상불 천만뜻밧기 라 그들의 의긔가심중한데 감 동하야 선찬과 학사문을돌아다 보며 「우리들은 살오차흔몸이 니어 지하면 조켓소 하고 뭇의햇습니다 「우리들은 장군의명대로쏫겟 습니다」 두사람의대답은 이밧게는업 섯습니다 그래서 관승은송강을 돌아가겟소 압즉어니즉일을 보고 「우리는 무슨면목으로서울로 돌아가겟소 압즉어니즉일을 바닷스면하오」 「그것이 웬말슴이십니까장군 께서 만약에 미천한것을불고 하신다면 우리와함께한울을 대신하야 일을하야보십이어 떠하십니까 그러나결코 억 지로 붓잡는것은 아니오니동 심하기 실타하시면곳 서울로 가시도록하겟소이다」 송강이 이러케하는말에 관승 은 「검탄을마지아니햇습니다」 「사람이 개벌 중의 송공명이 라하드니 진실로 허명이아니 로다 한울이사람을 세상에보 내되 군왕은 내군왕에보답 할이잇슴을알고 벗 (友) 은 내 벗에게갑흠이잇슴을일건마는 이제 나는 집이잇스되 가지 못하고 듣지못하게되엇도다 바라건데 막하에잇서서 한소 졸이될가합니다」 하니 송강이 매우깃버하야 경축의주연을배설하고 일방으 로는 도망햇든관군들을 불리모 아본즉 륙칠천명이나됩니다 그 래서 송강은 그중의 늙고 어 린사람들에게는 적지안흔돈을 분급해서 각기고향으로 돌려 보내고 또 설영 (薛永) 에게 는 관승의가족을 더려오도록 일르고 두어서 또 (?) 잇는 관승의가족을 더려오도록 해씀니다 이리하야 항수반검 (行酒半 酣) 에송강은 문득 북경에잡혀 잇는 로준의와 석수의생각이나 서 추연히 눈물을홀리거늘 오용은 송강의심중을 투찰하고 「형장께서는 넘우상심마시오 내게 재략이잇스온즉 래일다 시 대명부를처서 반듯이 성 공하야 노하더다」 이렵게 위로할 즈음에 관승 이압호로나서며 「모(某)는 아즉 몸살 (不殺) 의홍은을갑지못햇슨즉래일사 의 자긔몸이지안흔은혜) 런채벙벙이잇습니다 색초가 보 다못하야 닥아안즈며 「압서서는 적군의랑천에마저 실대햇슨즉 이번에는 긔필코 그원수를 갑하야겟슴니다」 하는말에 량중서는 짜뜻한술 을부어서 새초에게권하며 잘 분부되어주시오 벌리 본부의안마를거는이고 성 밧그로 나가서 적을맛나거든 리성파 문달은 그뒤를맛하나가 서 응원하도록햇습니다 나 때는 중동 (仲冬) 의절긔라 연일 바람이불어서 하늘의 미치연하 고 바람이불어서 얼어붓고 말발이 얼어붓고 말발이 얼어붓고 말 가와야 하나, 갓습니다 그러하니 소 흥과갓습니다 그러하니 소 한다면 꼭 비호국 (飛虎谷) 여다 리다 이니 송강은 진을치고 몇니 빨다 하련다 일군은 몃틀처 도 량 (梁) 주인 을 기 가온대 를 쪽 대로 맛만 이 해 야 을 흘 리 리 야 고 무 일도 하 냐 이 오 리 레 그 이 사 로 쳐 올 와 지 선 에 마 음 ...

「관승, 선찬, 학사문등 여러장 수가 송강에게 절하고 산진 에투신하고 이번에 선봉군이 되어서 이러로처들어옵니다」 하거늘 량중서는 그말을듯고 손 쓸일이 업으나 색초는 뛰어 나오며 ...

「곤승, 선찬, 학사문등여러장수가 송강에게절하고」 ...

「군장 (大刀闘勝) 이라는 이진압호로내 도관승 (大刀闘勝) 이사람과 시 살펴보니 적장의 한필 말에는 다가 뛰어나가 적군을 대할 살펴보니 적의 압호 로 달 이고 요사람은 비정 (?) 이 에 게 서 해 서 만 옷 니 항 복 ...

社告

右解任함

記者 李德仁

東亞日報社 羅州支局

東亞文壇 ◇學藝部選◇

어린아기
成川 金柳岸

나는어린아기를안앗소
이제世上에나오지
겨우두달된
젓살이포동포동신
복스럽고귀여운
사랑스럽운비어린아기를
나는안앗소
◇
따스한내품속에
나는안앗소
두팔에안은
내아기
「아가! 아가!」
허리를처며얼리어주니
새ㅅ별가튼두눈이
웃깁가려웃으며
무어라고종알종알
입이열리네
어린병아리가티
입이열리네
◇
꼿가티웃고
새가티노래하는
내어린아기
넘어도貴여운생각
넘처흐를때에면
내어린아기의압만흔
將來가
넘어도애닯어
넘어도애닯어
默然히흐르는한숨을
금할수업지만
새ㅅ별가튼두눈과
고사리가튼두주먹을
또깁히보고
또깁히보오니
오-또깁히보오매
흐르든한숨은변하야
웃음이되네

燈臺
成興 毛隱泉

바닷가 등대는
누구를기다려 이밤도
반작—반작—
◇—◇
뭇업는 바다엔
배ㅅ길이끈첫고
외롭든 갈메긴
집차저 갓는데
그래도 반작—반작—
◇—◇
한녯날저바다 푸른물결에
외어둔 장사를지낸
설어운엄마의
처ㅡ人는손짓인가?
◇—◇
가신님을버들기다리는
외로운시악씨의
무른눈동잔가?
◇—◇
반작—반작—
저燈臺 이밤에
누구를찻는가?
(九月十二日밤元山海岸서…)

讀書欄 「詩歌集」을읽고서(4)
金岸曙

◇ 詩集「國境의밤」에서 나는巴人의우렁찬부르지즘을 보앗습니다 아마 그러한우렁찬부르지즘을울오라면 詩壇에서巴人을除하고는 업슬줄압니다。시골뜨기가튼北國的野蠻이야말로 巴人의詩的感動의主體엿습니다 맛맛한絶叫 그自身이엇습니다 힘잇는痛哭 그 自身이엇습니다。그러나주수의巴人은 어데잇습니가。사슴은 뿔이特色이요 孔雀은 지차귀가 그特徵입니다。巴人은意識的으로 그特色인뿔과지차귀를 내려버리고 다른것을求하는傾向이보입니다。이리하야 이번『詩歌集』에나타난 그의詩作에는『國境의밤』에서보는것가튼『野性』이 업는것은아니지만은 하나도統一되지아니한陳列紹介가튼感이 업지아니합니다 巴人이좀더俗論가튼것을凌駕하엿습니다만은 나는巴人을위하야 엇던意識을집어너흔다라고하지말고 自己의素質대로나아가는것이 대단히조흔줄압니다

분하고 또분하야 뒤장래에
다라옴나 느는나무들안고힘
것흔들어봐네 그러나 웅실
도안하는것을 아제도 내힘
이不足구나 내힘이弱하구나

이것은「逆天者의노래」中의하나로 대단히힘잇는感動을주는作이라합니다 그러고이『逆天者의노래』는수篇으로보아 巴人이가장잘나타난것이라압니다 그러나 全體의詩歌로보아서 오래前에發表한『國境의밤』보다는 遜色잇는作品이만흔것은어인일입니까 이것이내가말한巴人의特色인뿔과지차귀를 내버리고 다른것을한갓되히求하라고함이 그原因이잇지아니한가합니다

詩形가튼것은 어떠한것을쓰든지 詩人의特權이기때문에무엇이라 말할수는업는것이외다。만은巴人의使用하는詩形가튼것은 거의羅列하다할만하야 二行、三行、四行、五行가튼것이나 될수잇는대로는 詩形도整齊시키는것이 조치아니할가하는 意見을해봅니다 그러고巴人의用語에對하야는 함부로쓰는듯한觀이잇스니 어쩌自己의思想을 담을唯一한器物을 愛待해서야될것입니다

「五月한울에 종달새 떠올라
『問安를그리자 산나물캐기
새시모로쫌바치어다 흙에부
르버 그音符보고 봄동에聲
봄의줌에 바다에 떨어진
波浪을 울리고 山에 떨어진 종달새 울려더니 다시
한울로 기어올라 구름속
깁은소낙이서지 울려낫네。
검은소낙이 一萬실비를불고
떨어지자 명에는 흙이 젓
물가터 꼭아지며 보리밧이
석자나 자라나네
아 五月의한울에 떠도는
종달새는 靑年을불고 山에
들에 떨어지네 떨어질때
우린들 한울밧기라 靑年이
안오랴。

는『五月의香氣』의詩로 아름답은詩인것을 감사하지아니할수가업습니다 그러나 나는巴人이만일用語에對하야 얼마큼注意를하얏다면『五月의香氣』가 가진것은 이만한아름답음에만맛지아니하고 보다더한作이되엿슬것이올시다

巴人의用語에對하야 實상을 것은 하나둘만아니외다「山川외香氣」라는作속에잇는「杜門洞」가튼詩가 그하나이외다

핀눈이大地에 가득할제 홀로고든 저찰때보앗는가
高閣末期외일흔두功臣이 그리네
兩路도不純케라 晉흔길개 문을닷고 終生햇네、
수世의斷腸들이어、愧死하여可할비라。

어떳습니까 이詩의 用語에 「不純케라」「終生햇네」니『愧死하여可할비라』가튼것을 참아그대로볼수가잇습니까 그러기때문에 巴人의詩에 想은조흐면서도 詩되지못한것이 만흔것이외다『言語를尊重해줍시오』하는한마듸를 나는 이巴人에게哀願해둡니다 言語를떠나서는詩가업슬뿐만아니고 적어도自己의思想을 如實하게담으라는사람으로 어떠케言語를 함부로使用할수가잇겟습니까

◇

아모리思想은 偉大한것이라도 그것을 그만한言語로 담지못하야서는 詩的感動은 줄수업고 平凡한散文에 지내지안는다는것을 나시금 늣겻습니다 言語의選擇때문에 무척 苦心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외다 ─一九二九、一一、一五─

史上의로만쓰 三國時代篇
白雲과際厚(三)
李殷相

멋날뒤에한수업시제호가 잠진으로가게되니 백운의가슴은 쪼개는듯하엿다 그러하며 하로 불압흔날밤에 홀로 벽을기대어안자 녯날에 밝은눈으로보든 그양지를 애닯게도그리며

『세상을 다녀저도 못니즐건 제후로다 못니즐 제후가뒤손에도다말고! 내운수 기구하나 랏이야 하라마는 녯날의 그마음은 버리기 어려웨라』

하고 거듭거듭 한식하며잇든때니 문득 창밧게서

『백운랑군 게서요』

이러한 아름다운 녀자의목소리가들니엇다 그것은 분명히그리웁든 제후의목소리엇다 백운은 놀래일어나서 문을더듬어열고

『누구요? 응? 누구요』

하면서도 꿈이나 아닌가하여 고개를다시 흔들어보앗다

『제후가 왓슴니다』

『응? 제후? 제후가?』

『네 랑군을뵈오려 제후가왓슴니다』

백운은 손을내어밀고 엄매질하면서 어두운눈으로 사람을찻는다。제후는 달려들어백운의 넘어진듯함을 밧도는듯 업스걸에 그손목을쥐엇다

두사람은 방으로들어가려고도안코 거긔에선채 흑흑늣기며울엇다。제후는 백운의모양을바라보며 옵옵을 멈추지못하엿고 백운은 녯날의 제후를다시는볼길업서 그가슴뷔어지는듯하여 울고또울엇다

이욱하여 제후는 겨우 그쏘다지는눈물을 거두고

『당신은 나의랑군이요 나는 당신의 안해외다』

백운은 이말에 놀라렴더니며

『지금에 랑군이라하고 안해라함을 어이그리놀라듯소』

『제후여! 이것이 어쩌된일이오? 이밤이 지나면 무진으로 간다는 제후가 이무슨일이오? 만일에 꿈이어든 어서나를 깨쳐주오』

『랑군이여! 나는랑군의안해외다 랑군은안심하소 부모의명령을 어길수업서 깨월이면무진으로가기는 가옵지만 내이미 낭군의안해인다음에야 어찌 다른이에게 이몸을바치리까 그곳에가서에는 내뜻대로할것이오 만일랑군이 신의(信義)가잇거든 곳나를딸하 무진으로오셔요 이말한마듸부탁하려 밤을타오신것이오』

『이것이정녕할진댄……』

『부디 랑군이여 지체말고오서요』

『이것이정녕할진댄……』

두손으로 가슴을쥐고

『이것이 꿈이아니오 꿈이어든새오 나는비록 제후를

『남이알새 커허하여더긴밤못드리나 랑군은 의심말고무진으로 오쉬요』

『이것이 정녕할진댄……』

제후는 그따뜻하고 보드러운 손으로 백운의손목을 다시한번 힘주어쥐고 무진서만나기를긔약한뒤에 그자리를 떠나갓다。 (계속)

愛誦二篇 ── 風蘭

힘 쓸 일
수수천명사람들이 얼마나 살지못해애쓰는가
아아저것을보라 저악과비참 그리고컨머속에서
외여처는사람들 빈한에우는 커모양을
아아친구야 조고만일이라도힘쓰소 저들을위하야
미미하기 그지업는일이라도힘쓰소 저들을도웁기위하야
──Havergal──

가엽슨사람
병든 사람에게 약을주고
근심하는이에게 편안과위로를 주면서도
가난한이 불눅밧이 눈멀은이에게는
가지마라 가만히견으라 이러케외여친다
그러나그들에게 결코조흔시괴란 오지안커늘
──Shakespeare──

海外漫畫

◇女子의世上◇ =十八=
경기는親切 =월슨·패닝作=

被害한男子「아、미안합니다、당신의라켓트는가망거첫지오」

雅俗 三四

◇飢鐘首都에禁音令 匈牙利國首府「부다페스트」市는 雜音이驟嘆하기로 世界第一이라는稱이잇는都會인바最近에 道路工事、貨物自動車其他의騷然한雜音을取締하기爲하야 市會의特別委員會를設하고 珍奇한制音規定을 作成하얏는데 첫재로貨物車의 警笛禁止、道路工事의夜間作業不許可、自家用車도 郊外以外에서는 電氣「싸이렌」을 使用치말일、消防自動車도 警鍾을 亂打하지안코다만強한「코라쉬라이트」로압흘비칠일、「오트바이」를 탄少年店員들의 競走는 絶對禁止、둘재로는 市民의街頭合唱을制限하야電車乘客이 큰소리로이야기하는것을 禁止하고 夜間의通行人은 나즉한소리로 말하게하고 「택시ー」의 손님부르는소리와 新聞장사의 웨치는소리로嚴禁、아이가함부로울면그兩親에罰金、밤열時以後에지音業하려면 許可를다새로마를일「이웃집에귀찬은鸚鵡나九官鳥는 一切飼養치말일、함부로크게지커며는개(犬)는 市內에두지말일、工場은아춤六時前은 規定實施後 六個月以內로全部撤廢할일等이라고

應接室

一、內容은設問이나應答이나 絶對로 簡單明瞭히
二、用紙는官製葉書에限함 一、三、校函은東亞日報應接室係로
三、氏名은記名이나匿名이나各自隨意

▲旅者 日本樺太를가려면旅行時手續이어떠하며旅費와旅行時日은며칠이나걸립니가 (樺太行人)

△記者 京城서約七十圓、七日假量이걸리고日本縱斷이가장갓가옵니다 警察의旅行證明이必要하지오

▲讀者 不良者는아닌데子息이돈만허쓸가보아事業經營을시키지아니하니어써하오리까 (事業하고싶허生)

△記者 훌이그러한父母가잇서沈滯한朝鮮事業界가더욱寒星답니다 알아들으시도록잘說하야老兒手腕에適當한事業을하야돈만허쓰지안는것을事實로써證明하야보이시지오

▲讀者 日本全國에飛行機學校는몃校나되며其中第一有力한學校는어느、? (飛行志願生)

△記者 全部十餘校나됩니다 立川飛行校가有名하답니다

▲讀者 上海로가자면엇게갈가요 路는어떠며路費가幾何며普通個人으로갈수가잇습니까 警察의調査가甚합니까 (一讀者)

△記者 釜山에서直航하든지長崎로거처가는것이便합니다 路費는四十圓假量드는데釜山서가자면二十圓만가저도될수잇겟지오 個人으로도갈수잇스며警察의調査는甚합니다

▲讀者 朝鮮사람도엿라질에갈수가잇습니까? 旅費는얼마나되는지오 (農民)

△記者 旅行券을가지면갈수잇습니다 旅費는四百圓假量

▲讀者 人造絹의原料는무엇입니까?

△記者 쐴래를만드는「어커귀」와休紙、藥品等여러가지랍니다

▲讀者 總督府女子蠶業講習所는어느곳에잇습니까 (合洞一讀者)

△記者 各道에하나或은둘씩잇습니다마는總督府直屬은업습니다

▲讀者 커는七十넘은老父와어린妻子五人을가진極貧者인데 애를써도살아갈수가업서서出家와自殺두가지中에擇하랴는데取其何者가可也 (果)

△記者 出家한다고 自殺한다고老父와妻子의살道理가생길것은아니니그래도좀더애를써살아볼밧게업지오

▲讀者 달이그음이면無光하고보름이면有光하니그理由가무엇입닛가요 (但그哲理를詳細히敎示하야주시오) (昌城哲理初學博士)

△記者 自稱哲理博士가地文學한卷도아즉읽지못한모양이구려 읽으시면알아집니다

▲讀者 親한親舊의妻가他男子와關係잇는것을보고그親舊에게알리어주는것이조켓습니까 (一讀者)

△記者 境遇를따라다르겟지오

▲讀者 市內에中等程度를短期로卒業할學校가잇습닛가요 (求校生)

△記者 市內壽松洞中東學校에速成하는科가잇습니다

▲讀者 朝鮮에서나日本에서代數學을講習식히는學院을가르켜주시압 (咸北高等一讀者)

△記者 京城壽松洞中東學校에問議하야보시오

新刊紹介
(紹介를願하는冊子는東亞日報社調査部로보내주시오)

▲經濟學全集第五卷(四回配本) 東京市神田區下六番町十番地平凡社發行振替東京二九六三九番

▲米大陸橫斷自動車冒險旅行 著者坂本正雄琦玉縣所澤陸軍飛行校前石川飛行士事務所發行定價一圓振替東京七九六二三番

▲現代世界小學讀本卷三 定價四十四錢京城府壽松洞八番地文化書館發行振替京城一四四六番

▲政友臨時增刊號 定價十五錢東京市麴町區內山下町一ノ一番地立憲政友會會報局發行振替東京二二六四番

▲朝鮮農會報(朝鮮文)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五番地朝鮮農會發行振替京城三〇三番

圖書出版日報
十九日圖書課納本

朝鮮文
佛敎第六十五號同社、世界小學讀本卷三申明均、肥料製造及使用法以文堂、パンフレット全二冊東亞之日本社、央다운靑春全一冊梁應會

日本文
朝鮮無盡時報創刊號同社、會報第二號小北金融組合聯合會、滿第十月號海平社、運轉之研究第三十七號鐵道局運轉課

娟筆生募集 三友社書房
最近東京方面自宅에서娟筆하는收入確實 年中無休 大阪市港區吾妻町三ノ三

御禮
小河正儀
同 末子

●珍味寫眞 各種有名人의寫眞 大連市若狹町 福華號

電話買入
本社에서電話二台를買入코자하오니願賣하시는이는本社庶務部로來議하심을뭅합
東亞日報社庶務部

天桃
내공광목은天桃표가데일

入院簡易
眼科、內科、外科、耳鼻咽喉科、產科、性病科
大邱西山町
松井病院
電話一二四六番

齒磨專門會社에서맨드는
ライオン齒磨
라이온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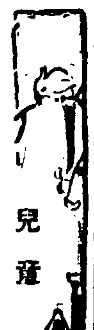
貴下의家庭에서는 齒牙를닥그십니까

●아버님어머님은、勿論아기네들은 모다齒牙를잘닥그십니까。

●萬若에。한분이시라도、닥그시지안는분이게시거든、곳、라이온齒磨를使用하시와齒牙의健全과身體의健康을保持하시도록하십시요。

本鋪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94-4.11



童話 외쪼기이야기(十)

RR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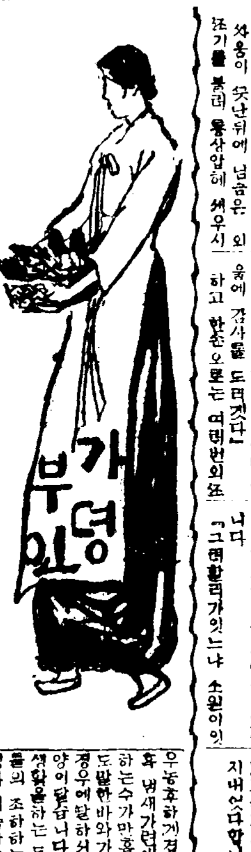
만일 외쪼기가 업섯드면 외쪼기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악독한 되나라군사에게 모다죽어버리고 말엇슬것입니다 사람의 반쪽박게업는 외쪼기때문에 다시 나라를찾고 백성이살아날줄이야 누구가 꿈에나 생각하얏겟습니까. 싸움이 끗난뒤에 님금은 외쪼기를 불러 용상압헤 세우시고 친히 외쪼기의 손을잡으시며 「참으로 고마운일이다 우리나라에 너와가튼 용사가 만일 업섯드면 어떠케되엇슬고。 우리나라의 운수가 아즉도 다하지아니하야 너가튼 용사를 우리나라에내보낸것이로구나 한울에 감사를 드려겟다」 하고 한손으로는 여러번외쪼기의 머리를쓰다듬엇습니다 외쪼기는 황송하야 머리를숙이고 「소신에게 무슨 용력이잇사오리까。모다 폐하의 인자하신 덕분에 한울이 도으신것이오이다」 대답을 엿주엇습니다 님금께서는 이말이 더욱마음에 들으섯든지 외쪼기더러 「너의 소원을말하라 내의 힘으로될일이면 무엇이든지일우어 줄터이니……」 하섯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소원도업습니다」 하고 외쪼기는 사양을하얏습니다 「그러할리가잇느냐 소원이잇거든 말을하렴으나」 님금은 장구 소원을말하라하셧습니다 「저에게 정말다른소원이 업사오나 언제든지 폐하께서이번의 싸움에와가트신마음을우리나라의 백성을 편히 지내도록하야 주시면 그만이겟습니다」 하고 외쪼기는 몸을굽혀절을하얏습니다 님금은 외쪼기의말에 더욱감상하사 그를대장군을 삼아 그나라군사를 거느리도록하얏다 합니다 대장군외쪼기를 아들로둔그의 부모들도 일평생을 편안하게 지내엇다합니다 (끗)

직업부인이되기까지

구식가정에나서 북간도의전도부인노릇(下)

녀자는남편잘엇는것이첫행복

林町 鄭明淑



어언간에 삼년이지낫습니다동생을보겟다는조건하에시부의허락을바더가지고사촌의집에와서눈물로맛나보게되엇습니다그때에 맹렬히구든생각은시집에는죽을지언정가지안키로작정하고삼사촌의눈을피하야도주하게되엇습니다어린동생을다려리고수원을떠나 경성에와서 동생남매를게모외손에 맛기고 어느전도부인을딸하 간도에들어가서 소위공부라고하얏습니다마는 남의집에서 일하며 잘될리가잇겟습니까마는 원체 겸심이구든탓으로 저의일욕자나 쓰게되엇습니다 재모와무더한탓으로 아제는 저의 동생도 중학사지 공부를마치엇습니다 저는 얼마간모하원에잇섯습니다 이도 조금이시괴하야 신경쇠약이라는 병에 장장하원을괴로웁게지내엿습니다 할수업시 동생을차저경성고향으로 떠나는도중에 몃사람을 뭇하게된니다

十年이라는 긴세월의 임생을 한숨으로 벗하게되고 리상의락원을 맛보지못한 저로서는 제가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임신의 갑망이 나마도어쇠하야 나가겟는지요 한몸의감당도 어려운것을지내여본 저로서는 여러분의 책임상 여러식솔을 감당하야 가시는분에게 동정하고 십습니다 저는 이새상에 허다한 고통을 가지게된것은 원고하신 아버님탓입니다 원망한들 소용이 잇서요 남의안해될시괴 남의어미가 되지못한 이몸은 책임이업습니다

녀성의교제라고는삶에

그러면 이것도 녀성이라고할른지요 고향이경성에 가는도중에서 사의치료를받고저하야 회령출참한려관한등에서이글을 쓰게된것입니다허다한고초와암흑의번민을어느조희에다쓰겟습니까 모처인쇄소에서도 수월간종사하야 보앗습니다 천진난만한어린이를 대할때에는 유일한 깃븜이생깁니다마는인쇄소에 서종사를하게되엇슬때는 도못하야봅니다 모다남청 아지요 일이잇서오시는분이야 몰론 달론이잇지요마는 일이 업시차서와서 말을하자는분이 잇습니다항상일도 분수하니만큼 장황이말을계속할사이도 업지마는 남성들대하야 귀먹은척 하고도 직업이라고 하야보앗습니다 녀자는이성의부가만나지못하며는 원생의전정을 망치는니만큼 결컨하박길에 헤매이는것갓습니다

냄새질기는품이

경우에딸하달라(2)

그의조하하는향수로써넉넉히 그사람을알수잇다

그리고향수를쓰는목적도로년괴에들어가서는자긔조하하는냄새로남에게불쾌한감정을돗기지안케하기위하는데또자긔자신도황김게해줌목적으로 대상됨은 잇습니다 그러나칭송시대에잇서서는 자긔의인상을 상대자에게 또는 제삼자되는사람에게 더욱이 그

여러분의지 업고롱의말

는 듯으면키로 하아큼 무거운 머리가 더 무거집니다 이십칭한기분으로지내기위주하는대

조하

하는것입니다 그들은약하고보드례운 향긔를좋아고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그사람의조하하는냄새를두고 그사람의생활내용을 상상할수잇슬것입니다 또냄새에대한것도 냄괴에 달하미를 만히가친 미혹적냄새를조하합니다 물론 이상을만히 쓰을라는것이겟습니다 마는그뿐만 아니라 과면 자긔의 유탕한빗을 나타내만한 냄새를

동성

보다도 이성에만한하는것 이시대의질기는 냉가슴알듯이 매이상한 관계로 사람의지시를딸 것은 모든것이 성적의미가

차즈려햇다 그러나 남에게 부 나이나 의뢰할수도업시 병어리 서진 사람을진사내외는 몰시도 쥐도 새도 모르게 밤중에 업 오십리ㅅ길을 걸엇다

短篇小說 男便과아들(七)

李 鄕

제풀에 성난 순남에게 무슨말을하여야 조흘지 신서방의 머리는 생각이 돌지 안햇다 그날밤은 별로이 그이상의론이 업섯스나 그날에 지내어서 부터는 두사람의 준비는 무서워 다 순남이는 외복과 괴명등속을 간단한 행장에 간족하고 신서방은 여러동내로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다

그러든중 한오십리밧게 신서방의 향리ㅅ사람이 솔가하야 농사하려왓스나 생소한곳이라 맛 낭한 일군을 구한다는 소문을 듯고 반기어 차저갓다 별문어 려지안케 땅해가되어 그날밤두 내외는 밤질로 메고 지고해서

하 압아차리엇다 조용히신서방을차저가서 돌아오기를 간청햇음다 그때서지는 얼려나듯이 보내엇다고 동려ㅅ사람의 못는말에 대답하얏든 뿌이다

「참으로 장인께 은혜는 말할나위가 업습니다 마는저안해를보아서 장인의 은해를박대 한시들 그대로견대지못하얏다 「내가 왜집을떠나자고하얏슬가 집에잇슬때에는 저이가 커리도 고생이야안햇것지」라고 혼자 정을하면서 집떠남을 후회안한 도아니엇다 세상살이가 그리도

려나자긔남편에 그러한 괴로움 목도해보기는 처음이니만큼 위하는것이라하야 참아왓다 그 단신으로떠돌아다니는 남편을 나귀에거슬리는 모든것을 혐 자긔는주인댁의 서슬푸른말씨 편이불상하고 제말이 아팟다 아가는 소리가 들릴적에나 남 이나아측외면리동리을때 소물 만하면 그대로고단히 잠자는것 오업시 저녁밥상을 내어가기 오는 남편이 그조하하는이야기 정에 날이저물도록 일하고돌아 넘이아니로되 오뉴월 삼복지 하게되는것만도 깃거운일이아 먹지안케되고 제살림제손으로 려나 순남에게는 한술밥이나마 쓰든 달든 남의눈치를보아가며 나 랍두한의복은입지안햇다 그

괴로운줄모르고자라난 순남이 가실상당해보는세상은 어린마음을놀래게만하얏다 그러하야 쎄로는집으로 몰아갈가 하는 생각이 날째도 잇섯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들이야 욕을하든 말든 동리사람들이 엇더케생각하든지 「엇저케하면둘이잇게 될고」하는 마음이 간절하얏다 「그러나그는하 노란 그에게는 오직남편이 잇슬뿐이엇다

「수원리나 된데요」 「여긔서 수원리시칠이나된다 「오 순남이는 서울한모양이다 「그래도 한이래만 일하고 보 「돈벌이가 하도 조타고 그리 「그래 굴루갈라고 그리우 「아라사라니오 거긔가 어대 「여보 돗자하니 아라사라는 나라에가면 돈벌이가 조타고 하두군요」

兒童作品

가을

慶源勞働夜學 吉彦鎬

그더웁고떠운녀름이지나가고 가을이도라왓습니다 가을바람이산들산들부러와서 단풍이 곱게드럿든나무닙들은 한닙두닙떠러집니다 농가에서는 눈이오기전에 겨울준비를하느라고대단히밧바합니다 어서츱기전에 도라오셧스면조켓습니다 달밝은밤에멀리날러가는기럭이 소리를들을째 이면멀리계신곳에서보내는소식을가지고서그냥지나가는것 가타서퍽도섭섭합니다

오늘의이야기

◇첨어린비행사

조흔이야기거리됩만한것이잇거든 한 학예부로적어 보내주시오

세계에서 가장어린 녀자비행사는미국가주에 잇다한다겨우 십일세가 박게아니된 소녀이다그런데 아메리카법률은 십륙세이하의 비행조종사는허가치안흠으로이스너는 현재그지방비행학교에서 귀본교육을밧고잇슬뿐이라고

第一回延專秋期 音樂大會開催

◇오는二十九日밤公會堂에서

연희(延禧)전문학교 음악부주최와 본사학예부 후원으로오는 이십일일이십구일(금요) 하오 닐곱시삼십분부터 시내장곡천 공회당에서 제일회 연희전문학교 추긔음악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바 현제명(玄濟明)씨 서떠닐뭄니다추음에에는환경이 단순히되어가는관계상때려케 한냉새를 불쾌하는경각이 강해 집니다마는더은때에는주위가원 치강렬하기때문에 겨울보다강한 시릴에 장미나백합과 향긔를조 하하는사람이라도 너름에는그 러한것으로는 부족을 늣기는것 입니다 그럼으로한여지방 온대 지방。열대지방에사는사람들의 질기는냄새에도차이가잇읍니다

라는 신서방말에는 대답할 고하야도 마찬가지이겟지오 두 게되엇습니다 이제 몰아간다 하는듯하지만 이런케 떠나오 의굴성굴성하게 눈물고인 엄 굴울보다 그의얼굴에서 집떠 나온 모든청회들이야기듯는것 처럼 머ㅇ하니안젓다가 아모 말도업시 엄마의돈을두고 어나간다 초상치르고 난사람 가터 이러다는말한마대업시 가 고 보내고하얏다 그이후로 진사의집에서는남 외손을 솔여가면서 살말도보내 주고 돈뭉간도보내어주엇다 그 러만흔것은 아니엇스나 신서 방내외가 지내기에는 그리이러 옵을늣기지안햇다 초식을하거 나 랍두한의복은입지안햇다 그

劇과映畵

朝鮮映畵界展望(二)

―그任務에對하야―

朴光均

映畵란우리의生活上 업지못할 藝術이다 그만치우리와緊接한 關係가잇다는것이며 偉大한힘을가진것이다

心理劇、史劇、冒險劇、悲喜劇、社會悲劇、家庭悲劇、喜劇、笑劇、敎育劇、宣傳劇 (帝國主義宣傳劇、社會主義宣傳劇)이모ー도는社會生活의 廣大한役割을하고잇다 우리의찻고저하는運動의한機關이다 삶을밝히는燈臺일것이다 그러면우리는이運動을積極的으로 支持해야할것이며 살려야할것이 요우리의것을 맨드러야할것이다

먼저朝鮮의映畵界를살펴보자

우리가바라고우리가願하고 우리가엇고 찻고저하는映畵가果然朝鮮社會에잇섯든가 무릇것도업시朝鮮을 아는사람으로서이나마본적이잇섯다면 危機에陷하야잇슴을넉넉히 알앗슬것이다 京城을中心으로各地方常設館에서 開封되는映畵의八九割을占領하고잇는 아메리가映畵를 우리는몰적마다어떠한感이이잇섯든가 어리석은作亂감의 돈지랄이라고안볼수잇섯다 其中의特殊한 作品도업다는것은 아니다 太半은음탕스러운춤애와 춤、抱擁과키쓰、華麗한都市

의珠玉누리 으리으리한邸宅、그게무엇이냐 생르조아의享樂을爲한작난감에 不過하다는것이다 이따위映畵가朝鮮民衆에게 何等의利益이잇슬가보라朝鮮의大衆은 무엇을찻고무엇을要求하고잇는가를―― 밥맛는白衣人 굶주린勞働者들人기업는農民이 아메리가映畵를보앗대자 거긔에 어떠한 收穫이잇슬것인가 阿片注射를 맛보는것과 가튼害毒뿐일것이다

朝鮮의大衆은무엇보다도삶을要求하고잇다 사람이사람이되어야겟다는것이다 사람이 먹고사람이살자는 世上이것만 웨사람과가티 살지못하게되며 웨西北間島北滿洲서베리아 로쫏겨가지아니하면안되느냐는 말이다 民衆의生活을떠난藝術이무슨價値가잇겟느냐 朝鮮民衆에게는 生을要求하는映畵가아니면 必要치안타는말이다 죽어가는 民衆에게삶의 糧食을주고가리

울고가리웃고 힘을주고勇氣를주며 밥만구옷만코 싸울엽고우슴만은 새나라를建設하는데에藝術이任務를 다할것이다

試寫評

폼페이最後日

이타리아그만티映畵 과리아쿨라孃 역타발윤氏主演

원작의「스케일」이 위대한만큼영화화하는데는 불소한노력과막대한금전을 요할것이다 이태리의한울 이태리의바다 태리의산이 업고는실감을주기어려운영화이다 화면의예술화는 쏘모든노력이 완연히보인다「그로가스」의자긔잇는것유감업시 발휘하야실감을준것이나「아바세스」의 음흉한성격을여실히표현한것이나 듯다싱격배우로 충분한역량이잇는것을 뵈어주엇다고하겟다 가련한「이데이아」도 심각한연기를 충분히뵈어주엇다 이영화의전반이 죽음딸분한듯한것을후반

작품전체로보아 현대문명에대한『아아로니』를늣긴다 이십세긔의 문명은ー로마제국의최후와갓다 음탕한생활、사치한생활 그형식만조금달을뿐이다 현대문명의몰상도이러케 메츨것갓다 이작품이 근대적색채를띄운것은 이십세긔문명의총결산을 보여주는것이다재미스럽고 아기자기한곳을바라보는것이아니오 만산에가득한다풍이나 설경을 바라보는 늣김이잇다 위대한영화이다

오란다공주 仁川愛館에上映 인천애관(愛館)에서는 명이십삼일부터 오란다공주와 공중주단(空中軍團)을 상영하게되어

蔡東鮮提琴獨奏會

十一月二十八日(木曜)午後七時半 長谷川町公會堂에서

「스루데니氏」伴奏 「會費」 白券壹圓五十錢 靑券壹圓 紅券五十錢 (學生)

東亞日報社學藝部 主催

有利 仕事 錦工堂 大阪市 ●特約代理店●

登山·旅行에! ペルメル 페르메르

總督認可 京城第一自動車學校

有川治助著 ジョン·ワナメーカー その人及び事業

商傑와너메이커時代가온다!!

그는 商海을비친一大巨光!!

世界에跳梁하는、아메리카니슴이저浮薄한『짜스』이나、써ー키ー』이냐! 아니다、아메리카文明의자랑은輕薄한流行의製造는아니다、보라! 여긔에商傑와너메이커가잇슴을!「와너메이커에는繁榮이잇다!」그리하야、아메리카의今日의繁榮에는그의精神이儼存하야잇다。그야말로「아메리카」魂의眞髓이다。只今、有川氏의魂麗한筆鋒은巨人의完全한容姿를日本에現出하얏다。넑으라! 이야말로全日本商人의羅針盤이요、困備한者에의『救援』이다

經濟恐慌의무엇이냐!! 秘鍵은이것이다!! 起하라! 會社에서、商店에서 團體申込殺倒! 汎濫!! 大와너메이커는、只今 全日本을風靡한다!!

忽然 60版 突破

定價壹圓五拾錢 送料二十錢

聽け! 本書に集る此讚辭·此反響を!

人生에의羅針盤 兵庫縣揖保郡 小宅小學校 植田良夫

商業經營者의싹이틀 神奈川縣 北川繁二

懸賞募集

【甲種】本書의讀後感想을左의規定에依하야募集합니다。
一、四百字原稿用紙一枚前後
二、賞金 一等(金貳拾圓) 二等(金拾圓) 三等(金五圓) 四等(改造社發行圖書) 貳名 五名 五拾名
三、優秀한것을順次新聞紙上으로發表하고入選은十二月上旬新聞紙上에發表
【乙種】(A)左에揭하는『와너메이커』의말은本書의몇頁에잇습니까? ...
(B)左記二問에答을하십시요

改造社 東京市芝區愛宕下町 振替東京八四〇二

米需給狀態와 來秋持越豫想

持越米四百八十萬石이一層七百萬石으로되엿는데此四百八十萬石說은農林省關係者의推想한來年秋持越豫想의誤傳이라고한다前者는『農林省發表』라고傳하얏스나그것은『農林省關係者가말햇다』라의誤傳이엇다한다省發表는後者이七百萬石說이正確하다그러고此需給의觀測은持越七百萬石朝鮮米五百五十萬石、日本米五千八百三十萬石、滿洲米二百五十萬石、外米百五十萬石計七千四百八十萬石의供給으로此에對한消費量七千萬石이라하면四百八十萬石은來年秋의持越이될것이다大阪은昨年에比하야斷然히貯米가少하야朝鮮米는着港되는대로倉庫에드러가지안코即時實需側에大部分配給되는터이다此와大阪在庫는新古를合하야[illegible]人氣에悪하야第二回豫想보다는減少될것을豫測하야前途低落의氣味가잇고日本米는晩稻의出廻가減收는減하다고보는便이만타山口縣으로부터大阪附近外지는아즉도조금도제入이업다主로作柄가되기때문이다

(東京著大阪米信)

其中

金貨	二五三、〇〇〇
金地金	八〇九、〇〇〇
政府所有金地金	二〇、〇〇〇
計	一、〇八二、〇〇〇

그래서金解禁斷行이此等의正貨勘定에어떠한移動을惹起할가함은畢竟解禁後의貿易과貿易外의日本國際貸借을決定함에看過할수업는作用을相伴하는것은

(一)日本銀行의金利政策
(二)政府의正貨政策
(三)英米金融事情의變化

等인으로此等見地上金解禁後의日本正貨勘定의移動을생각하면此는元來부터定確히豫斷할수업는間題이나大體에잇서金解禁第一年의正貨減少도만라고보아一億二三千萬圓에止할것이다此亦是解禁直後에는主로在外正貨가減少할것으로日本銀行의金準備減少는當分엄슬것을豫想하면支拂勘定의主要한것은

(以下單位千圓)

▲支拂勘定

(一)輸入超過(日本全國)

(最近五個年의入超平均今年은二億圓으로推定)二二〇、〇〇〇

(二)投機資金의回收二〇、〇〇〇

(三)電力會社와商事會社의短期借入金返濟二〇、〇〇〇

(四)各爲替銀行의海外借入金返濟

(五)海外投資

等이며또受取勘定은(以下單位千圓)

▲受取勘定

一、貿易外純受取超過(最近三個年의平均)一三〇、〇〇〇

二、外債受取金(第二回四分利英貨債借換에依한受取金)四〇、〇〇〇

等인데右中支拂勘定의爲替銀行海外返金은米國金利의低下와日本金利의引下로因하야金解禁後는此等金에對하야도가돌아[illegible]하며또海外投資에對하야도가必要가업게되나探偵關係로各有力銀行과信託會社의當事者는모다考慮치안는다그런外에으로는解禁第一年에支拂勘定으로는輸入超過、投機資金의回收、電力會社外商事會社의海外借入金返濟等의合計三億圓(入超三億二千萬圓에서貿易外受取超過七千萬圓을差引)이다此에對하야受取勘定은前記의一億七千萬圓으로差引一億三千萬圓의支拂超過가된다

▲在外正貨動員

此는結局金으로써決濟해야만될것이나在外正貨를日本銀行에引渡하는政府의方針으로보면此로因하야第一로動員될金은日銀의海外勘定에集中되는在外正貨一億七千萬圓으로海外借入金은畢竟解禁의影響을過度히恐怖하는一部의不安氣分을緩和케하라는手段에不過하고말하자면金解禁後의第一年에最多額으로볼對外支拂超過決濟로在內正貨를現金에와가리推測한다

▲英貨債借換

四分英貨債의借換으로日本側이四千萬圓의受取勘定이될것을앞에와가티推測한다借換銀行의境遇에英國側의引受額은五千九百萬圓이되나日本側은一億圓의證券을所有함으로그大部分을가지고잇는日銀과正金은正貨를擁護키爲하야引受額以上의四千萬圓을英國側의拂込으로回收케된다

解禁後金流出觀測

金解禁後의正貨移動은特히發券準備로된金準備의減少가어떠케决行될는지가財界一般의注目하는點이다此를在外正貨와在內正貨로分하야생각할밖이며金解禁及現金化가되는在外正貨는現金化가되는바그現在高는앞에와가티約二億四千萬圓이다

(以下單位千圓)

▲在外正貨

政府所有正貨 二二〇、〇〇〇

其中

一般會計 一七〇、〇〇〇

預金部 一五〇、〇〇〇

計 二二〇、〇〇〇

日銀所有在外正貨 一、〇〇〇、〇〇〇

다음에在內正貨는日本銀行의兌換券發行準備가된金貨、金地金과政府所有(一般會計)金地金의二者로그金額은앞에와가티約十億八千二百萬圓이다

(以下單位千圓)

▲在內正貨

日本銀行金準備 一、〇六二、〇〇〇

本月中旬 日本對外貿易

比昨年輸出入共增

【東京廿日發】大藏省發表、十一月中旬의對外貿易額은

(單位千圓)

輸出	五九、〇二四
輸入	五二、六四八
出超	六、三七六

으로昨年同旬에比하야輸出은一千七百五十九萬二千圓輸入은一千百七十八萬八千圓으로各各增하고出超額은五百七十六萬四千圓이增加하얏다또一月以降入超額은七千六十萬二千圓으로昨年에比하야一億八百五十六萬六千圓을減少하고更히昨年同期에比하야九千五百四萬三千圓의減少이다本旬에特히增加를示하고잇는것은生絲의輸出棉花의輸入으로本月上旬의出超額一千五百萬圓으로부터一轉六百萬圓으로減退된原因은棉花의顯著한輸入增에依한것이더라

蠶糸

元來不振時 더욱大打擊

米國需要減이念慮

蠶絲界로서 金解禁의影響을받는程度가매우多大할것이라고擧想되나 生絲의原價가거의原料繭과勞力으로된結果 金解禁으로爲替가騰貴하면 製品은低落하나 原價는容易히떨어지지안케되고生絲의市價는 全然消費者인米國의支配를바더 爲替高以上의崩落이잇을念慮가잇다그리고生絲業의그自體가人絹의騰進을바더漸次內容的으로苦境에빠지는데다가또金解禁으로因한打擊을바들것임으로더욱不振케될것이다 以上의

理由

로서 金解禁의打擊이蠶絲界에大하리라는所以이다事業界가金解禁으로因하야打擊을받는것은 그製造品의市價가떨어진比例보다는 生産費가떨어지지안는外닭으로 製品의市價下落에從하야 生産費가떨어지기가쉬울것이 解禁의打擊이로고 此와反對도製品이떨어지지지나 生産費가容易히떨어지지안코 特히生絲는爲替의騰貴가 鋭敏하게感應되는反面 生産費는爲替騰貴의反響이 그만한反響이업다即

勞力

으로된것임으로製品이떨어짐에不拘하고그生産費는 容易히떨어지지안코 특히生絲가하락할것이다

市價

는二四二点에서一八二點으로 此亦一、八%가騰貴한例에도生絲의八七兆이四九、〇九六兆로約一〇年三月外지爲替時勢가四一、또大正十四年六月로부터昭和二年의爲替가四年一月로부터八月外지爲替時勢가六、九%가騰貴하얏슴에도生絲價格이비례하지안코떠러지기始作하야 그低落의比例는八、四%에達하얏다

生絲도原料代價와加工費에 多少利潤을加한것이 生絲의價格이되야만할것인데日本의生絲는原價에依하면消費者商品으로 完全히生絲中心地가 産地에서消費地로옴겨가 消費地의時勢에의한投機에左右되는狀態이다다시말하면 消費者商品으로 完全히市價에依한不安定한市價는爲替時勢와動搖를利用하는買方이다 그럼으로生絲가 爲替의騰貴率以上으로 市價가떨어지고또爲替가떨어질지라도 市價가그만한反應이업다即

(一)日本의輸出生絲大部分이米國에集中이된結果生絲의市價支配權은完全히米國으로歸하고마릿다

(二)日本의生絲界가너무小規模經營者가亂立한狀態임으로米國에對抗할힘이업다

以上과가티元來日本의蠶絲界가不振한狀態이며또近者經濟界不況으로市場의大混亂으로因하야生絲需給者가悲觀하고잇슴으로生絲價가崩落되는이때에 金解禁이斷行이決定된것은 生絲로하야금더욱成衰를늣기게하는同時에金解禁으로因하야밧는打擊이甚大하다한生産界에 多少의利益을加한供給者로생각한다

伊太利구난데社
超特作映畵
마리아 골다孃
뷝크다팔코니氏

폼페이最後의날

斯界의堂堂히자랑할수잇는映畵는本篇!!

不滅의名著
不朽의名畵

同時封切映畵와演劇
女軍道……全一幕
아리랑고개……全一幕
映畵青春萬歲……全八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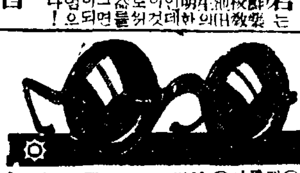
二十三日부터

朝鮮劇場

煙草喫者化粧品藥店에 定價十五錢

320

身體의不潔보다食器의不潔!
◇食器가不潔함이잇스면……
◇本商會에서食器一切를消毒하는
衛生食器研磨
◇食器가美化되는外에消毒도됩니다◇…… 그리고本品의需要는날로늘음니다!
發賣元 湖南線金堤本町 鈴木商會
振替京城二八二一番
特約店募集◇見本은要郵券六錢



高級眼鏡

茶色水晶렌스俱備

◎特色◎ 紫外線을除去하고 眼球를식히며 렌스面에는絕對로生起지안슴니다 子孫에게讓渡하야가더라도度數가變하는眼鏡입니다

◎價格◎ 貳拾圓。參拾圓。四拾圓。五拾圓。六拾圓以上各種白色水晶렌스七圓以上各種其他一般眼鏡製造販賣

獨逸칼·쯔아이스·쁘쓰렌스 米國AOC會社製眼鏡特約

赤十字病院 醫專病院 鐵道醫院 江頭眼科 金井眼科 安國醫院 指定

京城帝國大學御用

京城本町二丁目 大學堂眼鏡店
電話本局二三七五番 振替京城一一二九番

(新刊型錄進呈要郵券二錢)

弊店에서사시는眼鏡은消毒하야淸潔한것을販賣함니다 每日數回손을洗滌하고 從業하는店員一同은

名作 뉴-콤뻘그의詩人 10
名星 린드럽스 배루-케氏作 妖艶ㅅ과旁 루운ㅅ 랄버트 소홀 엘드 레나 -ㅅ氏主演
怨恨의人生 만은詩人의 가삼 운ㅅ 을맨 코리아 올 ㅅ와 ㅅ 인 ㅅ가 ㅅ 오 ! 原作 메드 ㅅ 루드ㅅ 필 ㅅ
名作 함석帽子 7
名星 곤라드 오네 ㅅ ㅅ 氏 外 主 演
◇새해에 大冒險王 八卷 ◇ 連續大活劇 快男兒하리 쎄 ㅅ 氏 決死的熱演
■十一月廿一日(木)부터 興行
◇獨逸ㅅ 會社特作 有名한獨逸映畵
市內 貫鐵洞 優美館 (電話光二九五番)

現代的代表品의唯一 靴界의最高權威

品質의精優良◆獨特의廉價

洋靴는 新流行의型으로堅牢를特製한 太昌號에

●學生靴
●上等품 ……六圓五十錢
●同 ……七圓
●高級품 ……八圓
●紳士靴
●同 ……九圓五十錢
●舶來품 ……十一圓
●同 ……十二圓
●舶來品도 ……六圓半

京城府黃金町四丁目三一〇
太昌號洋靴店
振替京城一二〇五七番地 電話長本局二九四七番
★型錄進呈

東亞日報社出版部編纂

京城百勝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必要先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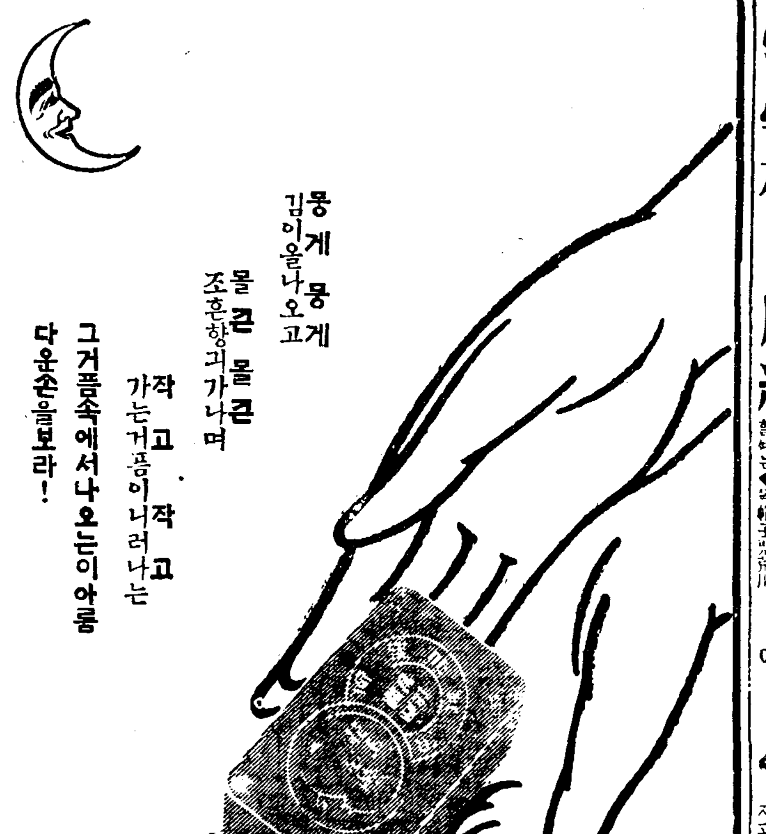
京城은近代朝鮮文化의發源地오朝鮮歷史의縮小圖입니다京城을아는것은朝鮮을아는것입니다路傍에굴르는돌한개、廢墟에선나무한개라도歷史的으로意義를가지지안흔것은하나도업슴것입니다『京城百勝』은비록小冊子이지만京城의精髓를蒐集하야簡易하게紹介한것입니다京城을알고자하는이는이冊을읽으시오 朝鮮을알고朝鮮歷史를알고자하는이는勿論이오

發行所 京城光化門通一三九 東亞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三五五五

東亞日報販京北部申込所 堅志洞三光堂內 電話光一六四二番

男女防毒藥고무 日本唯一精良品
삿쿠

○上品 一打卅八錢三打一圓六十錢
○特製 一打五十五錢十二打卸値三圓卅錢
○特上 一打六十錢十二打卸値四圓
○別製 一打七十錢十二打卸値五圓
○舶來 一打十五錢…
○羽二重 一打九十錢十二打卸値八圓
○極薄 一打八十錢三打二圓四十錢
○女用 一個七十錢一個一圓廿錢
秘密可個人名義로送付 他品고 比較乞 ○郵送料十二錢郵券五分增
東京銀座新橋八 振替東京七貳八 丁子堂
大阪支店 西區新町通二丁目 電話新町四五七番 振替大阪百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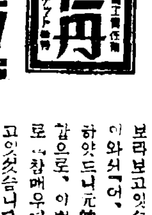


CHEVROLET

모양잇고타기조흔
시보레-幌型을
사서보시요!

日本제너럴모-터-스株式會社
시보레-
폰테아크
오-크랜드
特約販賣店
W·W 테일러商會
京城府太平通二丁目

日本제네랄모-타-스株式會社



濱化羅 仁丹

小粒 大粒

仁丹金言小話

東鄉元帥는不言實行으로有名한어른인데 元帥가巡行하얏슬때 赤道直下를지나는船艦甲板에서海上을보라고잇슨즉거긔에한船員이와서『아、매우더우시지요』하얏드니元帥가아모말도아니하얏으로、이번에는좀더큰소리로『참매우더웁습니다』한즉 그사람은스스로무러워스그머니그자리를물러갓슴니다 (시텐크)

◎말은밤에잇고입에잇지안타
元帥는그사람을 잠간물아보고『마음가지기에잇슴니다』라는한말만하고또다시海上을바라보고잇섯슴니다

銀粒新製仁丹、仁丹體溫計
仁丹와齒磨、仁丹型体溫計
仁丹의나란는약、仁丹齒刷子

花王石鹼本舖 ……

國民府委員 張基楚事件

취조결과가크게주목되어

吳東振信任밧든人物

【신의주】국민부집행위원(國民府執行委員) 장기초(張基楚)취조결과에 따하 어떠한범죄사실이 드러날는지 크게주목되는바 그외세명이 얼마전 봉천에상업하야다가 그곳일본령사관경찰에 체포되는동시에 지난三일 신의주경찰서로 호송되어엄중한취조를밧는중이라더라 그는 일즉이 정의부(正義府)에 관계되어잇든 오동진(吳東振)의 두터운신임을밧든사람으로 국민부(國民府)가조직되면서 민사부위원 장(民事部委員長)으로피임되어잇섯다더라

鄭成雲所持 千餘圓押收

김하는동시에 정성운(鄭成雲)은다른사건에관계되어잇는범인이라하야 체포되는동시에 현금일천원도 압수되어잇섯다더라

家賃減下의 速成會를組織

가수량인은자진해서감하

元山各團體가結束

【원산】원산(元山)시내의집세에관하야 가옥세를 감하하라는운동이 일어나 원산교육회(元山敎育會)와 원산청년회(元山靑年會)외 각단체에서는 가옥대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야 가임인하운동을 일으키기로하고 가임인하기성회(家賃引下期成會)를 조직하얏는데 상동(上洞)리원평(李元明)씨 이춘하(李春河)씨가 각각 이에 찬성하야 가임인하를 단행하얏다더라

公州高普校生 學父兄會解散

【공주】충남공주 고등보통학교(公州高等普通學校)에서 삼년전 어감사항을마지안는다더라 비의곤난을밧는때에 한도움이되얏는바 그아화에서엄동의시하에 천과금액을당하가부에인도하려는 중키로 결정되어지난이십일에 그회의본세산이이십삼원류십전을 당지칭년회 경영하기로하얏다더라

霜及에妓魂 法廷에悔淚

一만혼을혼연하가티살다가배신한 기생을죽이고사기도죽으려해一

檢事는懲役十年求刑

【평양】지난구월십칠일추석날고보살것업게되매 기생으로 마즈오후한시경에부내 진향리(眞香里) 오십삼번지 평양권번기생 리패화(李珮花)(二四)가 녕변구장(寧邊區長)의아들 법행을한후 자기도 죽으려고 강진찬(康鎭燦)(二六)의원한칼에쑥찔리어죽은사건은지난 이십일일오후한시평양지방법원에서 재등(齋藤)관사와한(韓)중촌(中村)배심 림(林)검사립회하에 박유무(朴愈茂)변호사의관선으로개정하얏는데 피고는 동정할만한 점이잇다하야 만흔동정을 어더 이십팔원언도와 삼년간 부부의생활을 계속하얏스나 동시에 검사로부터 십년의구형을하얏다더라

酒草消費高 卅萬圓突破

술과담배로삼십삼만원소비

永同郡의一年統計

술과담배에만한소비고(消費高)가해마다 증가해가는 형편으로 영동군(永同郡)에서만일년간소비하는 술과담배에 드리가는돈이삼십삼만원 이라는데 자세한수자로그통계를들어보면다음과갓다더라

◇酒類

濁酒 二六,七四九石(一斗 二圓五十錢)

藥酒 二六一石(一斗 八圓)

◇煙草 一八九,六〇五圓

洪原火田民 卅餘戶離散

집은헐리고빚금사지물어

森林組合干涉으로

【홍원】함남홍원군(咸南洪原郡)사상면외상리(外上里)에 잇는화전민 삼십여호는 금년에도 종전과가티 화전을경작하려고 하든바 산림조합(森林組合)에서 화전을 폐지하라고 엄중한 간섭을하야 부득이 삼십여호가 가산을 팔아서가지고 떠나가게되엇다는데 그중 갑자기 집을 헐리고 빗을 물게된 사람이 만하 비참한 광경을 이룬다더라

兩人은釋放

【간도】간도동흥중학교(東興中學校)교원 송봉욱(宋鳳旭)씨가 검거된후로 형의 사를 속속 검거하다가 항은 이미부터 비어잇든 집 십팔일에 혐의자로 검거되엇든 김경애(金敬愛)등 두명은석방되엇다더라

覆面强盜

로상에나타나

【평양】지난십팔일오전여섯시경에 내동군대보면팔청리(大同郡大寶面八淸里) 최원팔(崔元八)(三二)과최모두명이 동군룡산장에서 ...

釜山靑盟總會

이십사일에개최하기로하고

五個所支部大紛忙

【부산】오는이십사일오후시에 부산청년동맹총회(釜山靑年同盟總會)를열기로 되엇는데 그준비에 매우 분망중이라하며 오개소의지부(支部)간부(幹部)들은 대의원(代議員)선출을 하얏는데 각지부에서는 대의원 선출과 아울러 지부를 조직하야학교 부원을 조직하는 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한다더라

全州高普校 十週年紀念

【전주】전북전주고등보통학교(全北全州高等普通學校)에서는 오는 이십일일 동교강당에서 십주년기념식(十週年紀念式)을 거행하기로하고 교원제씨는 준비에 분망중이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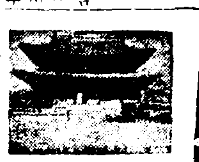
馬山郵局新築

【마산】오랫동안 마산우편국은 협착하든마산우편국은 이번에 신축하기로되어 경쟁입찰중에 잇든바 지난십팔일에 경성강비삼만오천오백원으로 경성(京城江波組)에 락찰되엇슴으로 근일중에 착수하리라더라

權友懇談會

【평양】이십삼일오후일곱시반에 부내백선행기념관에서 근우회 평양지회(槿友會平壤支會)주최로 근우친화(槿友親和會)를 열리라는데 아마추어의 협회에서 여흥까지 준비하야 흥미진진하리라는 바 부인계에서는 다수히 참석하기를 바란다더라

種別	年四	賣上高
永同	二年	三,五三八圓
揚江	三年	四,〇九一
陽山	三年	三,二六
梅山	三年	三,六六八
龍山	三年	四,五九五
龍化	三年	一,八〇二
深川	三年	四,八五〇
黃澗	三年	二,〇四六
梅谷	二年	四,七四九
上村	二年	四,七四六
黃金	二年	六,九二〇



端宗哀史 (203)

단종애사

春園 李光洙 作

靑田 李象範 畵

혈루편 (血淚篇) 十一

등도 만히 맨들엇다. 덕도서고 나물도삶앗다. 후원 뒤뜰 흙은 수나무미테 단을 모아서 제단을 삼앗다. 이 제단은 평시에는 로산군이 나와 안즈실데라고 생각하면서 정한 황토를 깔앗다.

이날 볕은 낫스나 몸시 무덥다. 첫가을다운 새파란 한울이 보이면서도 여긔저긔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올랏다.

오늘밤에 비나 아니오랴나하고 궁녀들은 들며나며 구름머리를 바라보앗다.

밤이들어 죽으마한등들이 달렷다. 버스불에씌어보낼 등들도 등굴동굴하게 싸혀잇섯다. 환하게 달이 떠올라서 지내가는 구름사이에 들락날락하얏다.

제단에는 두골 평풍이 업서 정면에 기둥우개를 세우고 거기 널반지 하나를 가로 건너매고 커다란 조히에다가 길게 지방을써서부치엇다. 이지방은 로산군이 손수 쓰신것이다. 「홍위(弘暐)라고 쓰시엇다. 이것을 쓰실때에 감개가 무량하시엇슴은 말할것도 업는 일이다.

로산군은 의관을 정제하시고 방에 홀로 안즈시어 지변함이 옛일을 생각하실세 후원에서 들리는 궁녀가 축원하는 소리가 들린다. 「왕생극락」「천추만세」가 들리는 구절이 수업시 들린다. 흐렁 더러는 왕생극락하라고 비는것이오 우리 님금(로산군)은 천추만세나 사시라고 비는것이다. 축문을 지어 읽을만한 문필의 힘도 업고 또 무당의 구변도 업는 그들은 그저 가튼 소리를 노이고 노이고 할 뿐이엇다. 중얼중얼하다가는 왕생극락, 천추만세, 상감마마이 더한 소리가 크게 들린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압창이 들리는것은 제사가다 끗이 나는모양이다.

이에슴부터 후드러두드려 뚤배나무 납사귀에 굴은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순식간에 천병만마를 몰아오는듯한 큰비가 되어 별안간에 마당에는 무릅이 잠기도록 물이 괴엇다. 울음소리와 번개와 비소리가 섞여 나려갈 길을 찾지못하는 수업는 시내

실때에 가장 간절히 시악난이 는 조부되시는 세종대왕과 아버니 문종대왕이시거니와 금생에 한번 대면해뵈옵지도 못하시고 또 일권에 종묘에서 그위패까지도 헐폐향을당하신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를 생각할때에는 피人눈물이 솟음을 금치못하시엇다.

다음에 쓰신이는 조모되시고 어머니와도가튼 혜빈양씨와 그 세아드님, 그다음이 안평숙부 부자, 그다음이아버님 항렬되시는 금성대군과 화의군영에 가장 나히 만흔 한남군(漢南君), 그다음에 황보인, 김종서, 정분, 허후, 유정난 때에 죽은 사람들을 쓰고 또 그다음에는 성승, 유응부, 박정, 성삼문, 박팽년, 리개, 하위지 등을 쓰시고 다음에 외조모와 외숙 권자 신의 위패를 쓰시고 다음에 장모되는 송현수 부부를 쓰시고 나중에 로산군의 유모 리오(李午)부부를 쓰시고 최종에 마자로 충혼원혼령가(忠魂冤魂靈駕)라고 쓰시엇다.

이것을 쓰실때에 감개가 무량하시엇슴은 말할것도 업는 일이다. 이 형성으로 이 모든충혼, 원혼을 부르시는 슬프신뜻이 초人불에 얼른얼른 비추인 그 필적에 들어낫다.

로산군은 친히 이 제사에 참여하시지는 아니하시엇고 다만 궁녀들이 러만 제사를지내엇다. 그 러치마는 친필로 위패를 쓰시엇스니 친제하심이나 다름이 업다.

어 쓰러를 부르시는 소리와 실로 천지가 뒤집히는듯하얏다. 불을 켜서 흩어 다려 나가버리고말앗다. 아니면 궁녀들은 로산군 좌우에 둘러서서 무슨 벌이나 당하기를 기다리는듯이 덜덜 떨엇다. 어디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난다. 무엇이 문허지는 소리다. 궁녀들은 더욱 무서워서 입을 이 파라케 질렷다. 부억 뒤벽이 문허지고 그리로서 뒤人산물이 콸콸 쏟쳐들어왓다.

曆日

陽一九二九年十一月二十三日
陰己巳十月(大)二十二日 辛未

	前	後	前	後
日 出入	七、二八	五、一八		
滿潮(仁川)			八、二五	九、一五

天候

(明日)晴、時々曇

京城 昨日最低 〇、七
昨年今日正午 四、〇
今日正午 〇、二

라디오

(二十三日)午後〇、二〇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〇、四〇浪花節 一、〇〇日本俳諧數種、二、〇〇分六、〇〇少女映畵物語朴淚〇、二〇講演七、一〇分一、四五 京城府內中等學校巡回 妓籍大會九、〇〇管絃樂九、二〇 明日天氣豫報및氣象概況時報 一、其他(朝鮮語)九、五〇 京城座唱及西道雜歌數種李映山 紅白牧丹

集會

▲朝鮮映畵의밤 侍天敎靑年會 主催로二十三日(土曜)二十四日 (日曜)夜七時부터侍天敎堂에서 朝鮮映畵의夜를開催한다는데入 場料는兒童十錢大人二十錢

社告

石就任함

總務 韓俊植

記者 崔龍珠

顧問 洪씨

同 韓泰鵬

東亞日報社寧遠分局

石就任함

記者 李德仁

東亞日報社羅州支局

石就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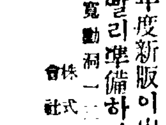
記者 趙斗欽

東亞日報社咸安支局

低廉하고 堅固한

政府御指定

トキワ
토키와 石油發動機



型錄進呈

西島番手
天一玄米機
各種精米機
旭式脫穀機

發賣元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松田淸商店機械部
電話本局二二九一二、二四一八、二二〇八
振替京城一三一二九

開業廣告

輪界의福音=自動車,自轉車「리야가」의必需品=「パンク防止液」出來=地方注文代金引換(地方販賣店募集)

湖南線裡里本町三四〇

啓信社湖南支社

家庭副業

材料貸附 收入確實

老若男女自宅에서容易히되고永久無限好內職見本說明郵券六錢要▲特約代理店募集秀品郵券六錢 東京本鄕元町二ノ六六 小田原綿絲部

■十一月二十二日早朝 ◇浮星座金小浪一行 十二日부터長期特別公演
◇悲劇 흐르는베 全三幕
◇喜歌劇 野球試合 一幕
◇少女歌劇 舞蹈와音樂
◇豫告 豪勇한지 七、八、九篇六卷 假花南北之後 八卷
高級 常設 國成社 電話光九五九番

學生界깁분消息

學生諸君이시여여러분제第一强敵인 試驗地獄을突破할唯一의武器되는

官公私立 師範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

入學試驗問題 模範解答

昭和四年度新版이出來하얏소 빨리準備하야大勝利를決하기를

定價八十錢 送料六錢

發行所 京城寬勳洞一三〇番地 株式會社 以文堂
電話光化門一四八四番 振替京城一〇二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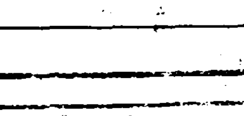
森永ミルクキャラメル

밀크 카라멜

一個五錢・十錢

森永밀크카라멜의 榮養價는 三、一二五카로리입니다

緊縮은…… 煙草의煙 榮養의菓子



富士山票金鷄蠟

金鷄蠟中의覇王!

金鷄蠟으로서富士山票보다더조흔것은업다!

1 그品質이優良한것 2 그容量이豊富한것 3 그色澤이優美한것 4 그價格이低廉한것 等―이러한모든點에잇서々……

(到處藥店販賣)

京城支店 藤澤友吉

炭煉製官

炭順撫

官製煉炭과民製煉炭과의品質에는雲泥의差가잇습니다

官製가米이면民製는麥입니다

利益한官製煉炭을擇하십시요 貯炭場에서現金으로사시는분에限하야는 撫順炭・官製煉炭아올러特別히廉價로販賣합니다

特約販賣店

三國商會

身體에맛도록無料로 고처드립니다

여러분 安心하고사기조흔

冬洋服豊富具備

오―버 六圓부터 男兒服 三圓부터
詰衿오―버 六圓부터 女兒服 二圓부터
男女學生오―버 五圓五十錢부터 女兒오―버 四圓부터
돈비 十三圓五十錢부터
쓰본 二圓八十錢부터
詰衿上下 十一圓五十錢부터
背廣三揃、學生만도、婦人코―트

東亞의洋服展覽即賣會

明治町派出所隣

地方特約店大募集

火災保險은必要不可缺하고 商賣로도利益하오 自己의本業外에 [illegible]

朝日兄弟商會

訃告

晉州河正璜은以無何病症 卯時別世茲以告計 友人總代 [illegible]

解禁斷行에는 絶好의 機會이다
◇藏相의 聲明書

現內閣은就任以來內外의狀勢에鑑하야 [illegible] 別會計에도發行豫定額을半減하 [illegible]

財界事情好轉

[illegible]

正貨의 狀況

[illegible]

短期間付解禁

[illegible]

將來正貨維持 及爲替調節

[illegible]

解禁後의覺悟

[illegible]

金解禁斷行은 一月十一日로決定
二十一日臨時閣議로 多年懸案이落着

【東京二十一日發】政府는金銀의輸出取締를撤廢하기爲하야二十一日臨時閣議決定에基하야 左의大藏省令을公布하얏다 即此에依하야昭和五年一月十一日以後金銀의輸出은全然自由로되어金解禁問題는玆에確信的으로解禁을하게되엇더라

解禁令의內容
廿一日午後四時半公布

昭和五年一月十一日을施行期日로定한金解禁의大藏省令은二十一日의官報號外로써公布가되엇다

大藏省令第二七號

左의大藏省令은此를廢止함

◇大正六年大藏省令第二六號(金銀貨幣又는金銀地金輸出取締等에關한件)
◇大正六年大藏省令第二八號(金貨幣又는金地金의輸出取締等에關한件)
◇大正七年大藏省令第三八號(金或은銀을主된材料로하는製品等의輸出에關한件)

附則 本令은昭和五年一月十一日부터此를施行함

昭和四年十一月二十一日 大藏大臣 井上準之助

影響出現은 明年六月부터
高橋是淸氏談

【東京二十一日發】政府가解禁을斷行하는以上[illegible]

生産

[illegible]

相當

[illegible]

朝鮮에도 解禁令公布
二十二日官報로

日本의短期間限附金解禁發布가되엇슴을機會하야朝鮮總督府에서도左記二府令을廢止하고昭和五年一月十一日부터施行하는旨를二十二日朝鮮總督府官報號外로써公布되엇다

(一)大正六年九月總督府令第六十五號=金銀貨幣及金銀地金의輸出에關한件
(一)大正七年九月總督府令第八十五號=金或은銀을主된材料로하는製品等의輸出에關한件

朝鮮米移入은 經濟施設로制止
法規統制는避한다
閣僚모다無異議

【東京二十一日發】朝鮮米移入統制問題에關하야는米穀調査會小委員會에서審議하고잇섯는데 그大勢는 月制移入統制를行하기爲하야 새로法規를制定케하기를決定하랴는 形勢이엇든故로拓殖省과밋朝鮮總督府에서는 朝鮮統治上不穩當하다하야 反對氣運이昂上하기에至하얏든故로廿一日午前首相官邸에濱口總理大臣、町田、井上、松田各大臣이參集하야 意見의交換을하고此의妥協에依한朝鮮米解決을計하는바잇서서 結局朝鮮統治에齎來하는影響을考慮하야 法規에依한朝鮮米統制와가튼方法을採用치아니하고 國立農業倉庫를建設하야 低利資金을融通하야 朝鮮米調節하는所謂經濟施設에依하기로 意見이一致한貌樣인데 二十二日該小委員會에서도 此에對한異論은업슬모양이라더라

正金建値引上

【橫濱電】橫濱正金銀行은二十二日午前各地向爲替建値를 [illegible] 引上하야英米爲替建値를如左히改訂하다
對英電信賣 二志[illegible]
對米電信賣 四十八弗四分三

米委員會 諮問事項
農林省議決定

【東京二十二日發】農林省에서는二十二日午後四時부터開한米穀委員會에附議할諮問案에對하야省議를開하야結果如左히決定하얏더라
一、第二回收穫豫想과昭和四年[illegible]

會計損失

[illegible]

日本米價의 基準을設定
生産費를標準하야서 米調小委員會에서

【東京二十一日發】米穀調査會特別委員會小委員會는二十一日午後一時半首相官邸에開會「米價調節基準設定案」을議題로하야[illegible]

金組貯金貸出 十九日現在高

[illegible]

諾威銀行利下

【오스로二十一日發】諾威中央銀行은金利를六分에서五分半으로二十一日에引下하얏다

愛蘭銀行利下

【더부린二十一日發】愛蘭自由國中央銀行은그金利를五厘引下하야六分으로하얏다

英蘭銀行은 再利下를斷行
六分을 五分五厘로

【倫敦廿一日發】英蘭銀行은二十一日再次割引率을六分으로부터五分五厘로引下하다 此는去一週間의사이에割引市場은公定割引步合에依하야거의一分低하고 及英蘭銀行의割引率은紐育準備銀行의公定步合보다도一分五厘나高하기때문에 一般으로非常한引下를豫想하고잇더라

白米價格引下

京城府各社[illegible]

株式 急落後一息
前場暴落

[illegible]

後場保合

[illegible]

◇急落의原因

[illegible]

賣叫물急下放
政局不安으로

[illegible]

兩政黨系對時

[illegible]

波瀾더욱滋蓄

[illegible]

兩便

[illegible]

解禁의無影響 金融梗塞問題

[illegible]

前場低落

[illegible]

大分岐는來月

[illegible]

後場反撥

[illegible]

金解禁과今後

[illegible]

外米制限注目

[illegible]

各店賣買

[illegible]

各店俵合

[illegible]

主要株取組高

[illegible]

米期 畢竟에 下分岐

[illegible]

延取 各地前場

[illegible]

正米 買方이 見送

[illegible]

京取短期取引 / 東京短期 / 大阪長期取引 / 東京現株前場 / 大阪短期取引 / 仁川前場 / 大阪前場 / 東京前場 / 各地期米 / 群山 / 仁川正米時勢 / 京城正米時勢 / 大豆定期 / 仁川大豆時勢 / 大阪綿糸 / 京城綿絲布時勢 / 大阪棉花 / 橫濱生絲 / 大阪砂糖 / 濱外砂糖 / 對外爲替 / 海外經濟 / 滿洲各地商況 / 安東取引所 / 鎭平銀 / 滿洲取引所 / 奉天 / 京城手形交換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日本金利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